

목차

환영 및 전체 안내

- 환영사 02 최미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환영사 03 장동구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축사 04 조규형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축사 05 정종철 | 주미대사관 교육관
워크숍 개요/일정 06 한희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육간사

강의 및 자료

- 머리말 09 최미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강의록 I 13 문일용 | Fairfax County School Board Member , Lawyer
강의록 II 14 황정숙 | Vice-Principal, Sarang Korean School
강의록 III 23 이승민 | Principal, New Covenant Church Academy
강의록 IV 25 황정숙 | Palisades Park High School Korean Teacher
교사 교안 31 연수 참가교사
차세대 교사 보고서 54 연수 참가교사
참고자료 65 Reading List Based on Korean Stories
참가자 명단 68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 미 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차세대 교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차세대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1회 차세대교사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치고 오늘 2차 워크숍을 본 협의회 고향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지역에서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본 협의회가 진행중인 사업들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 사업 중에서 차세대 교사 워크숍 만큼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2세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가 3세와 4세로 넘어가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및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바로 온 학생들까지 이제까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학생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라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그들을 위한 학습 형태와 방법 및 교사의 역할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교사들도 오늘날 한국학교 학습자의 다양성에 부합하도록 이중 언어, 미국식 교육 환경, 학습자의 다양성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 리더십의 고양 등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본 협의회는 지난 34년의 역사 동안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동포 학생들의 바른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단체로서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큰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도 길어지면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를 다 잘하고 미국식 교육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차세대 교사들의 확충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3회까지의 본 협의회 학술대회의 주제에도 ‘차세대 교사,’ ‘차세대 지도자’ 등의 키워드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차세대 교사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세대 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해 바른 정의나 현재 한국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차세대 교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나 리더십 훈련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 주말한국학교에서 헌신하시는 차세대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교사의 역량을 크게 키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 앞에서 차세대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많은 차세대 교사가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닉스의 본질과 본연의 목표를 재인식하며 21세기를 살아갈 후대를 교육하는 교육자인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뜻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동 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하신 동부 지역 협의회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동부 지역 협의회들에서 선발되어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워싱턴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총영사님 그리고 강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최미영 총회장님과 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미국 이민 초기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정체성을 심어주며 함께 모일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학교를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소명 의식으로 봉사하신 결실이 미주 전역에 한국학교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활성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3년 전 미국의 한국학교가 연합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조직되어 미주 내 한국학교는 물론 해외 한국학교의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감당해 오고 있으며,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AT II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되어 응시인원 증가하고 대학 입학에 도움도 주어 왔고, 또한 공립학교와 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채택한 곳이 늘어나고 꾸준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각 한국학교 학생들의 등록 분포에서도 동포 3-4세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세대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자질향상이 절실한 때에 본 협의회가 차세대 교사가 맡아야 할 필연적인 역할에 대처키 위해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시작한 것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논의하며 나누는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시고, 차세대 교사들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우리 자녀들의 한국어, 한국의 역사, 문화교육에 좋은 성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 규 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차세대 한글교육의 미래과제까지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최미영 총회장님, 장동구 이사장님, 그리고 제 2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하신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재단(OKF) 이사장 조규형입니다.

먼저, 어려운 교육환경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다음 세대(Next Generation)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은 국토가 넓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부존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인은 억척같은 끈기와 의지, 남다른 근면과 성실, 중단 없는 개척심과 도전정신, 놀라운 교육 열정으로 광복(光復) 70년 만에 ‘산업화(産業化)’와 ‘민주화(民主化)’를 동시에 이룩하였으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181개국에 720만 명의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를 일궈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민주화·글로벌화는 ‘이민(移民)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역인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에 힘을 입은 바 크며, 최근에는 여러분이 구축해놓은 인적·물적 네트워크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화 한류(韓流, K-move)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글학교 관계자 여러분!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의 안정 정착과 권익 신장은 물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현지 주류사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자기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이민 후예로서의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족정체성 체험의 장(場)이자 한글·한국문화·역사 교육의 터전인 ‘한글학교’ 인프라 강화에 열(熱)과 성(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들에게 개인의 성공은 물론 부모와 국가, 민족과 세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혼(魂)을 불어 넣는 유능한 교사 확보와 맞춤형 연수를 위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등 대륙별·국가별 파트너들과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워크숍은 1박 2일 12시간의 연수 수료도 중요하지만 광복(光復) 70년의 역사와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재미(在美)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차세대 교사 발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환경에 둘러싸인 차세대 한글교육의 미래과제까지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재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재미동포(Korean American) 뿌리교육 발전에 힘써 오신 한글교육 관계자들의 헌신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부모·선배들의 뜻을 유지·계승해나가고 있는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운 차세대 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종 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재미한국학교 차세대교사 워크숍 : 의미와 기대

미 동부에서 처음 개최되는 차세대 교사 워크숍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동 행사를 기획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휴가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께서 읽으셨다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책에서 저자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접어들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다음으로 1등 국가가 될 가능성과 잠재력을 여러 분야에서 가지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빗대어 헬조선(Hell Choson)이니 오포세대(五拋世代)이니 하는 자조와 절망이 난무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작지만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바드대학교 박사 출신의 미국계 한국인(실제로 6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부인과 결혼하여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음)의 해안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과 이에 터한 무한한 가능성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잘만하면 세계적인 가치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서 정신가치 숭상의 전통과 미래세대의 교육을 중시하는 훌륭한 전통이 있고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미래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성스러운 소임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을 제일로 친다는 것입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기획한 “차세대교사 워크숍”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새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1.5세, 2세 교사 분들로 하여금 한글과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행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동포후속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장에서 ‘스승’으로서 존경받기 위한 여러 가지 덕목을 체화하고, 정체성 함양과 뿌리 찾기라는 소중한 교육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수법 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자라나는 동포후속세대로 하여금 우리 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 주류사회와 글로벌 환경에서 자랑스런 우리의 가치와 함께 보편적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주류사회와 교육 현장으로부터 한국어는 물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전문가로 인정받고 더 큰 활동을 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권합니다.



한 희 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육간사

1

워크숍의 목적

- 1) 차세대 교사의 현재 위치, 현재의 문제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교사의 비전을 모색하여 본다.
- 2) 차세대 교사의 전문성을 특화시켜 한국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다.
- 3) 차세대 교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2

추진 방향

- 1) 차세대 만의 특별한 환경과 재능을 토대로 한국학교에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2) 차세대 선배들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차세대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본다
- 3) 각 지역별 한국학교 수업 사례 발표와 문제점 토론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의 기회를 확대한다.
- 4) 차세대 교육자 간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교류를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다.

3

시행 계획

- 1) 주관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 2) 후원 : 재외동포재단
- 3) 교육 일정: 2015년 10월 31 ~ 11월 1일 (양일간)
- 4) 장소 : Washington D.C/ Courtyard Marriott Hotel /Reagan National Airport
- 5) 대상 : 차세대 교사: 2세(미국 출생) 혹은 1.5세(대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 교사로서 3년 (5년) 이상 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로 활동한 선생님,
2차 참여 협의회(동부지역): 동북부(3명), 동중부(2명), 동남부(1명), 남서부 (1명), 워싱턴 (12명)중서부(1명),콜로라도(1명)
- 6) 참가자의 할 일:
 - 2세 혹은 1.5세로서 한국학교 교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설문지를 통해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다.
 - 학습지도안을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
 - 제출 일시: 2015년 10월 5일 밤 9시(서부 시간)까지 제출

4

교육 운영 계획

- 1) 차세대 교사 워크숍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편성한다.
- 2) 워크숍의 취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한다
- 3) 소그룹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각 자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어 보다 비전적인 방향을 찾는다
- 4) 참가자의 워크숍 전 후의 관리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확대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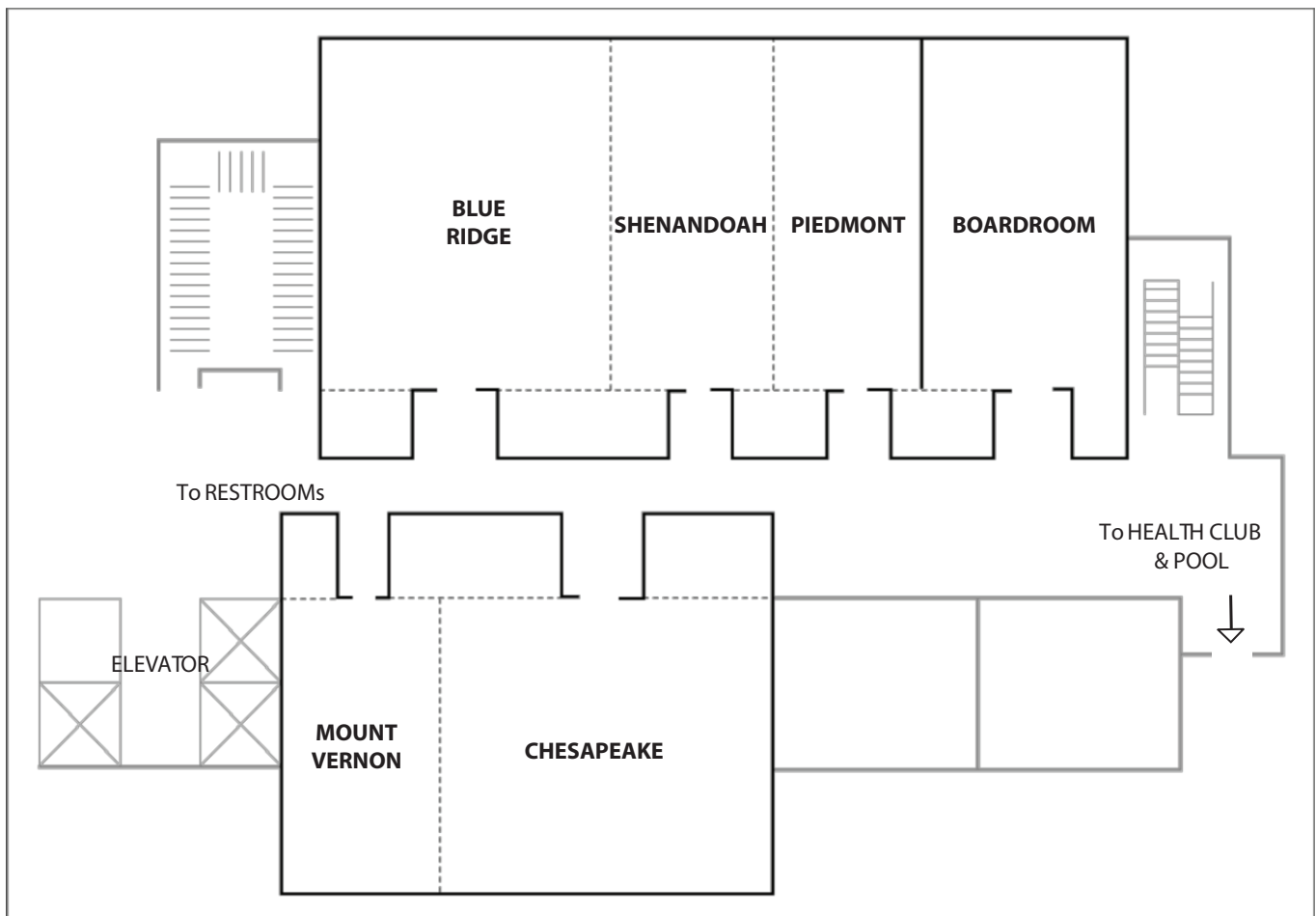
10월 31일 (토)

12:30 pm	참가자 도착
1:00~1:30 pm	개회식 <사회: 한희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육간사>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환영사: 최미영 총회장, 장동구 이사장 ▪ 축사: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훈 주재관 대독), 강도호 총영사, 정종철 교육관 ▪ 워크숍 개요 보고 ▪ 손님 및 참석자 소개 ▪ 단체 사진 촬영
1:30~2:30 pm	강의 1 <차세대 교사의 비전과 리더십> – Ilryong Moon (Fairfax County School Board Member , Lawyer)
2:30~2:40 pm	휴식
2:40~3:40 pm	강의 2 <실제 수업에 어려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 – Jeong-sook Hwang (Principal, Sarang Korean School)
3:40~3:50 pm	휴식
3:50~4:50 pm	강의 3 <How does your generation differ from the older generation? How do you overcome this difference?> – Dan Lee (Principal, New Covenant Church Academy)
4:50~5:00 pm	휴식
5:00~5:30 pm	차세대의 소명 (멘토링 1) – Kyong Yi (Vice-Principal, Emmanuel Korean School, Philadelphia)
5:30~6:00 pm	교사 모델수업 1
6:10~7:30 pm	저녁 식사
7:30~8:00 pm	휴식
8:00~8:30 pm	강의 4 < Korean Language Teaching in the US: Cases of New York and New Jersey> – Jeong-sook Hwang (Palisade Park High School Korean Teacher)
8:30~10:00 pm	그룹 토의 (라운드 테이블): 함께 문제 풀어가기 <주제 : 차세대 교사의 현재와 미래>

11월 1일 (일)

7:30~8:30 am	아침식사
8:30~9:00 am	정리
9:00~9:30 am	차세대 교사를 위한 선배 교사의 조언 (멘토링 2)
9:30~10:30 am	교사 모델 수업 2
11:00~11:30 am	차세대 교사의 비전 발표
11:30~12:00 am	수료식 및 폐회

Courtyard(Marriott) Arlington Crystal City/Reagan National Airport



1 머리말

차세대 교사의 현 주소

최 미 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들어가는 말

재외동포재단의 ‘2014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글학교(또는 한국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 수는 116개국의 총 106,397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5,333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대륙별로 나눌 경우 한글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북미로 미국과 캐나다 등 두 나라에만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인 1,07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은 57,702명에 이르고 교원 수도 9,939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재외동포재단, 2014).

숫자 면에서만 아니라 미국 주말한국학교의 역사도 50년이 되어 가고 있고 교육 대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주로 2세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오늘날에는 3세와 4세 학생들로 넓혀졌고, 다문화 가정 자녀, 입양아, 한류 팬 등으로 한국학교 교육 대상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는 학생들과의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문화권에서 성장한 차세대 교사들의 참여가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차세대 교사의 필요성과 과제

본 협의회 학술대회 주제에도 여러 차례 ‘차세대 교사’ 혹은 ‘차세대 지도자’라는 키워드가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주말한국학교 교육에서 차세대 교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세대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차세대 교사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차세대 교사의 정의, 현재의 문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알아보고 차세대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많은 차세대 교사가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주말한국학교에서의 차세대 교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 보았다. 앞으로 차세대 교사 워크숍과 교사연수회를 통하여 차세대 교사에게 필요한 특화된 연수회와 네트워킹 그리고 리더십 강화 등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차세대 교사는 누구인가?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1.5세 혹은 2세 교사를 차세대 교사로 생각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을 일컫고 있다. 북가주 지역에서는 대학교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교사를 차세대 교사로 보고 2년 이상 한국학교에서 근무하면 표창을 주는 형식으로 그들을 격려한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한국학교의 교장, 협의회 회장직 등을 많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교사들은 주로 부모가 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차세대 교사들이 교사로 봉사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

차세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을 나열하였다 (미주 한국일보, 2013).

- 한국어 차세대 교사는 본인에게 혜택이 있다.
- 자원봉사를 한다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배려해 주고 혜택을 준다.
-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보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
- 나도 부모님의 강요로 한국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
- 멘토처럼 고민이나 진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 부모의 문화권은 내 뿌리에 대한 이해이자 다른 문화권의 이해 포용력을 넓히는 첫 길이다.

차세대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사회가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봉사자에게 배려와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차세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 2008년 본 협의회 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은 차세대 교사 혹은 차세대 지도자의 역할에 관하여, 아직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거나 눈에 드러나는 업적이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민족의 자긍심이 있는 사람, 올바른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이광자, 2008).

즉 동포 학생과 학부모가 이중문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가진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현지인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 교사는 한국과 현지, 한국문화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둘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차세대 교사의 과제는?

차세대 교사들은 본인들이 한국학교에서 동포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를 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이 있음과 동시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004년 필라제일교회 한국학교 배재령 교사는 본 협의회 학술대회에서 강의하면서 차세대 교사가 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1.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2. 1세 교사들의 열정에 비해 차세대 교사들은 열정이 부족하다.
3. 차세대 교사는 Transitional period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세 교사들이 사용하던 커리큘럼이나 교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4. 1세 교사들이 가진 좋은 정신과 아이디어를 잘 응용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줄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은 위의 배재령 교사가 차세대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발표한 지 10년 후인 지난 2013년 학술대회에서 최연소 1.5세 교장인 북가주 새하늘한국학교 송아리 교장과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이다. 송아리 교장은 무작정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만을 기대하고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사 훈련 등은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였다.

“왜 한국어를 그것밖에 못 하느냐’ 고 말하기보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마음을 격려하고 소속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재미한국학교 최연소 교장인 송아리(31) 산호세 새하늘한국학교 교장은 “차세대들에 무작정 한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학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며 “잣대를 낮추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차세대 교사가 나올 수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1.5세나 2세 등 차세대를 보조교사로 뽑아 한국어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세대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시피 해 한국학교 교사의 ‘세대교체’ 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미국 동포 중에도 외국인과 결혼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계 혼혈 등 다양한 학생을 품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가 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NAKS 등 한국학교 모임이나 연수프로그램에서 다양성과 관련해 한국학교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차세대 교사들이느끼는 어려운 점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세대 교사만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주말한국학교에 차세대 교사의 부족에 관해서 또 다른 의견은 현재 한국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점이다. 남가주 한국학원 김홍선 교육감(2013)은 젊은 교사 지원 부족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와 달리 교사를 지원하는 젊은 분에게 ‘봉사정신’ 만 강조하기가 어렵다. 10년 이상 똑같은 보수문제도 젊은 교사들의 사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말 한국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200달러 정도의 등록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렌트와 행사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면 교사들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300달러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교사들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의 차세대 교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10년 전이나 현재나 차세대 교사가 많이 나와서 동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나가야 하고, 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문화권에서 갈등의 요소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보며, 현지인과의 접촉점도 될 수 있으므로 차세대 교사의 위치와 양성은 매우 중요함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차세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를 더 잘 이해하고 정체성도 바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세대 교사라고 해서 모두 교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그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사 연수와 기다림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1세 학부모에 대한 이해, 커리큘럼 및 교수 방법 등에 대한 훈련 및 실제 연습이 필요하며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차세대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교사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연수와 모임에 초청하고 차세대 교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 협의회 연수에 꼭 들어가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또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 문헌

미주 한국일보(2013). 차세대 교사들의 한국어 사랑.

<http://sf.koreatimes.com/article/831425>

미주 한국일보(2013). 한국학교 교사 노령화, 20~30대는 없어요.

http://www.kosaa.org/kosaa_press_release/167/?lan=ko&list_style=calssic

배재령(2004). 차세대 교사와 한국학교.

제22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강의를 pp.100-101.

연합뉴스(2013). 이민 110주년 맞은 미국 한국학교, 변해야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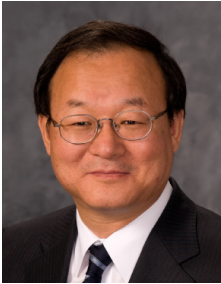
<http://www.detkr.com/print.php?idx=29318>

이광자(2008). 차세대 지도자의 교육과 교사의 역할.

제2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강의를 pp.55-57.

재외동포재단(2014).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2 강의록 I



문 일 용

Fairfax County School Board Member , Lawyer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 났거나 아주 어렸을 때 온 학생들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런 학생들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현재 삶을 그대로 교사들이 과거에 살아 보았기에 단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세대교사들의 역할은 소중하며 이 역할을 맡은 교사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단지 한국어나 한국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도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며, 한인 사회에서 뿐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살아 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나의 지난 40년간의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로 나누면서, 나의 이야기가 차세대 교사들에게 좀 더 좋은 교사로 발돋움하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와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후 공직으로 진출해 지난 20년간 버지니아 주의 패어팩스 카운티라는 지방 정부의 작은 공직이지만, 그 공직 생활이 나 자신과 주위에 주어 온 영향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A portrait of Dr. Yoko Kikuchi, a woman with dark, wavy hair, smiling and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She is wearing a dark top and a watch on her left wrist. The background is a blurred indoor setting with a staircase railing.

-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을 중심으로-

(Vice-Principal, Sarang Korean School)

한국어 문법 교육은 크게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² 교수 방법에는 인지 단계, 문형 연습, 자유 문장 작문, 담화 작문, 자유 담화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문법 수업에는 준비단계, 제시 및 설명 단계, 연습 단계, 사용 단계가 필요하다. 각각의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 하겠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가 1988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제 학습 현장에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본다. 필자는 교사의 바른 문법지식이 바탕이 될 때 학생들의 올바른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한국어 문법 지식³을 갖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바른 한국어 교수(敎授)를 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글맞춤법과 표준어는 1988년에 규정되었으며, 외래어 표기법은 1986에 규정되었다. 또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2.1.1 제 1장에서는 총칙(1항-3항)을 보여준다.

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2.1.2 제 2장은 자모에 대하여(4항) 설명한다.

2.1.3 제 3장은 소리에 관한 것(5항-13항)을 다룬다.

된소리/ 구개음화/ ㄷ 소리 받침(뎃저고리)/ 모음(계수, 계
시판, 의의)/ 두음법칙 ㄴ→ㅇ(여자), ㄹ→ㅇ(양심), ㄹ→ㄴ
(노인)/ 겹쳐나는 소리(딱딱)

2.1.4 제 4장은 형태에 관한 것(14항-41항)을 설명한다.

- 1)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 2)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3) 모음조화(어미 아/어)에 맞게 적는다.
- 4) 불규칙 용언(ㄹ, ㅅ, ㅎ, ㅌ, ㄷ, ㅂ, 여, 러, 르) 불규칙은 바뀐 대로 적는다.
- 5)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음/-ㅁ, 이/히)은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2.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3.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지도에 초점을 맞춘다.*
4. 김재옥(2006),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5.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고시 제88-2호*

- 6)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꽃잎, 시커멓다)
- 7) 사이시옷의 표기(30항):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나뭇가지, 냇물, 나뭇잎),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귓병, 제삿날, 사삿일),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다른 한자어에 사이시옷은 적지 않음-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 만 사용)
- 8)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뽕쌀, 머리카락, 안팎)
- 9) 단어의 끝 모음이나 체언과 조사 등이 줄어드는 경우에 준 대로 적는다. (엿저녁-어제저녁, 온갖-온가지, 그건-그것은, 가-가아, 개-개어, 해-하여)

2.1.5 제 5장은 띄어쓰기(41항-50항)에 관한 규정이다.

- 1)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에서부터, 꽃이다)
- 2)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등은 띄어 쓴다. (어느 것, 한 개)
- 3) 수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4)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 박동식 박사, 남궁역/남궁역, 황보지봉/황보 지봉)
- 5)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전문 용어는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대한 중학교/대한중학교, 만성 골수 백혈병/만성골수백혈병)
- 6) 보조용언(47항)

2.1.6 제 6장은 그 밖의 것(51항-57항)을 따로 묶었다.

- 1) 부사의 끝 음절이 ‘이’ 로만 나는 것은 ‘-이’ 로 적고, ‘이’ 나 ‘히’ 로 나는 것은 ‘-히’ 로 적는다. (깨끗이, 족히, 솔직히 등)
- 2)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심부름꾼, 판자때기, 빗깔, 팔꿈치)
- 3) 다음 말은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갈음, 반드시/반듯이, -러(목적)/-려(의도), -로서(자격)/-로써(수단),
-므로(이유)/-으므로써(수단)

2.2 표준어 규정⁶

2.2.1 제 1부 표준어 사정 원칙(3장 26항)

2.2.1.1 제 1장 총칙

6.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제 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2.2.1.2 제 2장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3-19항)이다.

- 1) 자음의 경우
나팔꽃/강낭콩/ 사글세/ 돌/ 셋째/ 수놈
- 2) 모음의 경우
강충강충/ 쌍둥이/ 꽃내기/ 아지랑이/ 미장이/ 미루나무/ 윗니/ 웃돈
- 3) 준말의 경우
귀찮다/ 무/ 궁상떨다/ 수두룩하다/ 일구다/ 저녁노을/ 서투르다
- 4) 단수 표준어의 경우
꼭두각시/ 쌀 녀 되/ 석 자/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봉틀/ 천장
- 5) 복수 표준어의 경우
쇠고기, 소고기/ 네, 예/ 괴다, 고이다/ 쪼다, 쪼이다/ 거슴츠레하다, 게슴츠레하다/ 나부랭이, 너부랭이/ 꺼림하다, 껌름하다

2.2.1.3 제 3장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20-26항)이다.

- 1) 고어의 경우
*냥→냥떠러지 *애닭다→애달프다 *오얏→자두
- 2) 한자어의 경우
*목발→지갯다리 *맞상→겸상 *홀벌→단벌
*알타리무→총각무
- 3) 방언의 경우
*우렁헝이→멍게 *귓머리→귀밑머리 *어린순→애순
*코보→코주부
- 4) 단수 표준어의 경우
*-게시리→-게끔 *까탈스럽다→까다롭다
*부스럭지→부스러기
*새벽별→셋별 *신기스럽다→신기롭다 *편뜻→언뜻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못하다
- 5) 복수 표준어의 경우
가름, 가물/ 가엸다, 가엸다/ -거리다, -대다/ 녕쿨, 녕쿨/ 고깃간, 푸줏간/
-뜨리다, -트리다/ 모쪼록, 아무쪼록/ 보조개, 볼우물/ -(으)세요, -(으)셔요/ -이에요, 이어요

2.2.2 제 2부 표준 발음법(7장 30항): 생략

제 1장 총칙/ 제 2장 자음과 모음/ 제 3장 소리의 길이/ 제 4장 받침의 발음/ 제 5장 소리의 동화/ 제 6장 된소리 되기/ 제 7장 소리의 첨가

3.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

3.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주요 개정 내용⁷

- 1) ‘-읍니다’가 ‘-습니다’로 바뀌었다.
*있읍니다→있습니다. *없읍니다→없습니다.
- 2) ‘-장이’와 ‘-쟁이’를 구분하여 쓴다.
미장이, 유기장이 등 기술자를 일컬을 때에는 ‘장이’로 옥쟁이, 심술쟁이 등 버릇을 일컬을 때에는 ‘쟁이’로 한다.
- 3) ‘-군’을 ‘-꾼’으로 쓴다.
*일군→일꾼, *농사군→농사꾼
- 4) ‘-와’를 ‘-워’로 쓴다.
*고마와→고마워, *가까와→가까워
ㄴ 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ㄴ’이 ‘우’로 바뀌므로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가 맞다. ‘곰다’와 ‘뚫다’의 경우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적는다. ‘고와 고왔다’, ‘도와 도왔다’
- 5) 수컷을 이르는 말은 ‘수’로 통일한다.
수평, 수강아지, 수컷, 수평아리 (예외: 숫양, 숫쥐, 숫염소)
- 6) ‘-웃-’, ‘-윗-’은 ‘-윗-’으로 통일한다.
‘윗도리, 윗니, 윗목’이 맞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쓴다.
(위짜, 위층, 위쪽, 위턱)
아래와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쓴다.
(웃돈, 웃어른)
- 7)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이 순신→이순신, *김 구→김구
- 8) 수를 적을 때는 만, 억, 조 단위로 쓴다.
예) 이억 팔천이백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9) -요/-오
말의 마지막에 ‘-시오’는 틀린 사용이다.
반드시 ‘-시오’로 표기하기를 권유한다.
또는 명령형의 말에는 반드시 ‘-시오’로 표기한다.
예) *수고하십시오.(X) 수고하십시오.(O) 수고하세요.(O)
하지만 연결형은 ‘-시오’를 쓴다.
예)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연필이요, 이것은 공책이다.
- 10) -데로/-대로
장소를 나타내는 ‘-곳으로’의 의미인 경우에만 ‘데

로’로 표기한다.

- 예) 부탁하는 데로 해 드리겠습니다.(X)
부탁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O)
조용한 대로 가서 얘기 합시다.(X)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합시다.(O)
- 11) ‘-므로’와 ‘-ㅁ으로’
‘하므로, 되므로, 가므로, 오므로’ 등과 같이 어간에 붙은 어미이다. ‘-이니까/이기 때문에’와 같은 ‘까닭’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ㅁ으로’는 명사형 ‘-ㅁ’에 조사 ‘-으로’가 붙은 것으로 ‘-는 것으로’, ‘-는 일로’와 같이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 성공하겠다.
그는 아침마다 공부함으로 성공을 다졌다.
 - 12) 안/않-
부정하고 싶은 말 앞에는 ‘안’, 부정하고 싶은 말 뒤에서는 ‘않’이 맞는 표기이다.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 13) -음/-습
사슴, 가슴 등 명사 이외에는 ‘습’으로 끝나는 말은 없다.
줄임말은 ‘음’이 맞는 표기이다.
예) 꽃을 보았습니다. → *꽃을 보았습(X) 꽃을 보았음(O)
 - 14) 되다/꽤다
우리말에 ‘꽤다’는 없다. ‘꽤’는 ‘되어’의 준말이고 ‘됐다’는 ‘되었다’의 준말이다.
예) *그가 우리 모임의 회장이 꽤다.(X)
그가 우리 모임의 회장이 되다.(O)
*공부를 더 해도 되요?(X) 공부를 더 해도 돼요?(O)
 - 15) 한글 자음 이름
기역/니은/디귤/리을/미음/비읍/시옷/이응/지읒/
치읓/키읔/티읕/피읖/히읇
 - 16) ‘-이’와 ‘-히’
‘깨끗이, 똑똑히, 큼직이, 단정히, 반듯이, 가까이’
‘-하다’가 붙는 말은 ‘-히’를, 그렇지 않은 말은 ‘-이’로 쓴다.
예외: 깨끗이, 따뜻이, 너부죽이, 뚜렷이, 지긋이, 큼직이, 반듯이, 느긋이 등
 - 17) *몇일/며칠
*오늘은 몇 월 몇 일입니까?(X)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O)
 - 18) ‘더욱이’와 ‘더우기’, ‘일찍이’와 ‘일찍이’
*더우기(X) 더욱이(O), *일찌기(X) 일찍이(O)로 구분

7. 개정 내용 전체를 다룰 수 없기에 주요 사항들만 선별해 정리한다.

해 쓴다.

19) ‘-로서’와 ‘-로써’

‘-로서’는 자격적 조사(신분, 지위) ‘-로써’는
기구적 조사(도구, 재료, 방편, 이유)이다.

예) 그는 회사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돌로써 지은 건물입니다.

20) ‘-던’과 ‘-든’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낼 때 쓴다.

‘-든’은 조건이나 선택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꿈을 그리든 어린 시절(X)

꿈을 그리던 어린 시절(O),

*오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X)

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O)

21) ‘-ㄹ 게’와 ‘ㄹ 게’

‘할 걸, -줄 게’ 등과 같은 종결어미는

예사소리로 표기한다.

예) 그 일은 내가 할 게. / 일을 조금 더 하다가 갈 게.

22) ‘아니요’와 ‘아니오’

부정의 ‘아니(감탄사)’에 해요제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표기한다.

예) *아니오, 못 가요.(X) 아니요, 못 가요.(O)

3.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 오류의 실제⁸

1) *우쪽 *좌쪽/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우측 좌측

2) *이른 11시/오전 11시

3) *지갯군/지계꾼(직업,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4) *숫놈/수놈 *숫소/수소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양, 염소, 쥐의 경우에만 숫양, 숫염소, 숫쥐로 표기한다)

5) *이것은 책이요/이것은 책이오.

6) *적잖은/적잖은

7) *솔직이/솔직히, *열심히/열심히

8) *생각컨대/생각하컨대/생각건대

9) *섭섭치 않다/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

10) *못치 않다/못하지 않다/못지 않다

11) *나뭇군/*나뭇꾼/나무꾼, *땃갈/때갈, *빛갈/빛갈,
*성갈/성갈, *콧배기/코빠기, *발꿈치/발꿈치

12) *고민으로부터 벗어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벗어나려고)

13) *먹는다 영미가 밥을/ *먹는다 밥을 영미가
영미가 밥을 먹는다. (주어+목적어+동사)

밥을 영미가 먹는다. (목적어+주어+동사)

14)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나무에 물을 주었다./

철수에게 물을 주었다.

15) *총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16) *선생님께 돈이 계시다./선생님께 돈이 있으시다.

17)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모험
소설이다. (읽히는)

18) *비상시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리지)

19)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을 줍니다.)

20) *거칠은/거친

‘ㄹ’ 받침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거칠은 들판(X) 거친 들판(O)

*날으는/나는

예)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X) 하늘을 나는 비행기(O)

*같은 배/간 배 예) 나는 간 배를 좋아한다.

21) *금새/금세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는 ‘어느 사이에’의 준말이므로

‘어느새’가 맞다.

22) *뉘/둘

생일이나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둘’로 통일해 쓴다.

23) *일찌기/일찍이 *더우기/더욱이 *오투기/오투이

24) *촛점/초점 *머릿말/머리말 *전세집/전셋집

전체가 한자어인 경우라면 다음의 말 외에는 ‘ㅅ’을
넣지 않는다. (곶간, 셋방, 숫자, 뒹간, 횡수, 찻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는 ‘ㅅ’을
넣는다. → ‘나뭇가지,

아랫집, 조갯살, 전셋집, 횡수’ 등. 뒷말의 첫 소리가
‘ㄴ’이나 ‘ㄹ’,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ㄴ’소리가 덧붙여 발음되거나 ‘ㄴ’소리가 두 개
겹쳐 발음될 때 ‘ㅅ’을 넣는다. → ‘아랫니, 제삿날,

젓날, 잇몸, 빗물’ 등

25) *두째 *세째 *네째/둘째 셋째 넷째(열두째 스물두째)

26) *미쟁이/미장이 *멋장이/멋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

27) 띄어쓰기 유의:

어머니가 서울가서 방을 얻었다. / 어머니가 서울가

서방을 얻었다. 철수가 큰 방에 들어가네? / 철수가

큰 가방에 들어가네? 똥똥한 사장 마누라 /

똥똥한 사장 마누라

재미있는 책 읽기 / 재미있는 책 읽기

8. 실제 한국어 수업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오류들을 정리해 본다.

3.3 혼돈하기 쉬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익히기 9

- 1) 얼음/ 어름(두 물건의 끝이 닿은 데)
- 2) 빛-광(光)이나 색(色)을 나타내는 말
별-햇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陽)을 나타내는 말
- 3) 너머/ 넘어
너머- ‘집, 담, 산, 고개 같은 높은 것의 저쪽’ 을
뜻하는 말
넘어- ‘어떤 물건 위를 지나다’ 의 의미
- 4) 비추다/ 비치다/ 비취다
비추다- ‘빛을 나타내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빛을
보내다’ 의 뜻이다.
비치다-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의 뜻이다.
비취다- ‘비추이다’ 의 준말로 ‘비추임을
당하다’ 의 뜻이다.
예)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었다.
살결이 비치는 옷을 입었다.
- 5) 반드시- ‘틀림없이 그러하다’ 의 뜻이다.
(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듯이- ‘물건의 놓여 있는 모양새가 기울거나
빠뚱어지지 않고 바르다’ 의 뜻이다.
(예: 물건들을 반듯이 놓아라.)
- 6) -(으)로서 (자격: 학생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 (어미: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 (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으)므로(써) (조사: 그를 믿음으로(써) 그 일을 맡겼다.)
- 7) -던지 (과거 시제: 그렇게 좋던지 옆에 누가 가도 모르더라.)
-든지 (나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8) 붙이다 (종이에 사진을 붙이다)/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9) -을/ -를
모음이나 ㄴ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는 ‘-을’ 을 붙여
‘백분율, 사고율, 모순율, 비율’ 등으로 쓰고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는 ‘-를’ 을 붙여
‘도덕률, 황금률, 취업률, 입학률, 합격률’ 등으로 쓰면 된다.
- 10) 띄다 (‘띄우다, 띄이다’ 의 준말)/ 띠다 (어떤 성질
을 일정하게 나타내다)
예) 어제 편지를 띄었습니다. / 분홍빛을 띠는 나뭇잎이
멋있습니다.
- 11) 작다 (‘크다’ 의 반대말)/ 적다 (‘많다’ 의 반대말)
예) 키가 작다./ 사람의 수효가 적다.
- 12) 일체 (모든 것)/ 일절 (전혀)
예) 안주 일체 무료입니다./ 그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습니다.

- 13) 부딪치다/ 부딪히다
57항. ‘부딪치다’ 는 ‘힘차게 부딪다’ 의 뜻이고
‘부딪히다’ 는 ‘부딪음을 당하다’ 의 뜻이다.
예) 차와 차다 마주 부딪쳤다. 길을 가다가 건물 벽에 부딪혔다.
- 14) 놀라다/ 놀래다
‘놀래다’ 는 ‘놀라다’ 의 사동사이다. ‘놀래다’
는 ‘놀래 주다’ 의 구성이므로 나는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깜짝 놀랄 ‘수는 없다.
- 15) 늘이다/ 늘리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늘이다- ‘힘을 가해 본디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하다’)
실력을 늘리다. (늘리다- ‘늘게 하다’)
- 16) 다르다/ 틀리다
예) 저 아이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아주 (*틀려/달라).
- 17) 맞추다/ 맞히다/ 마치다
맞춤법 55, 57항. ‘맞추다’ 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 는 의미이고, ‘맞히다’ 는 ‘적중하다’ ,
‘마치다’ 는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 의 의미이다.
예) 나는 열 문제 모두를 맞혔다. 내가 쓴 답과 모범 답
안을 맞추어 보았다. 나는 오늘 숙제를 다 마쳤다.
오빠는 새 양복을 맞추었다.
‘*옷을 맞추다, *마춤 양복’ 등은 ‘*마추다’ 를
안 쓰고 ‘맞추다’ 를 쓰기로 했다.
- 18) 째/ 채/ 체
‘돼지를 통째로 구웠다’ 의 경우에는 ‘-째’ (접미사)로 쓰
고, ‘온 몸이 묶인 채로’ 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올 때는 ‘채’ (의존명사)로 쓴다. ‘체’ 는 의존 명사로서
‘아는 체하다’ 와 같이 쓰인다. ‘*돼지를 통채로 구웠다.’
는 틀린 사용이다.
- 19) 벌이다/ 벌리다
‘벌이다’ 는 ‘일을 벌이다’ 처럼, ‘벌리다’ 는 ‘다리를
벌리다’ 처럼 쓰인다. ‘*잔치를 벌리다’ 와 ‘*논쟁
을 벌리다’ 는 잘못 쓰인 예이다.
- 20) 새우다/ 새다
‘*밤새다/밤새우다’ , ‘새다’ 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새우다’ 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다.
‘밤사이’ 의 준말인 ‘밤새’ 는 다르다.
이 경우 ‘밤새 비가 내렸어.’ 가 맞다.
- 21) 좇다/ 쫓다
‘쫓다’ 는 추상적 행위를 나타낼 때, ‘좇다’ 는
구체적 행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명예를 좇다. 선생님 뜻을 좇다. / 새를 쫓다. 도둑

을 쫓아가다.

22) 짓히다/ 제치다/ 제끼다/ 제키다

‘짓히다’는 ‘속이 겹으로 드러나게 열다’의 뜻이고, ‘제치다’는 ‘어떤 범위나 대상에서 빼다’의 뜻이며, ‘제끼다’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척척 처리해 넘기다’의 뜻이고, ‘제키다’는 ‘살갓이 조금 다쳐 벗겨지다’의 뜻이다.

예) 형이 대문을 열어 짓히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제쳐 놓은 사람이다.
그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 제끼는 유능한 사원이다.
살갓이 좀 제켜서 약을 발랐다.

23) 드러내다/ 들어내다

‘들어내다’는 ‘드러나게 하다’는 뜻이고, ‘들어내다’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다’의 뜻이다.
예) 마음속을 드러내 보여라. 못 쓸 물건을 밖으로 들어내십시오.

24) *사겨/*사구 ㄱ/사귀어

‘사귀어’만 맞다. ‘*언제부터 사겼니?’는 잘못된 표현이다.

25) *사그러지다/ *사글어지다/ 사그라지다

‘감정이 사그라지다’만 맞는 표현이다.

26) *삼가하다/ 삼가다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바르지 못하고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다.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가 맞다.

27) *퍼래지다/ 퍼레지다

‘퍼렇다’에 어미가 결합되어 ‘퍼러니’로 쓰이니 ‘퍼레지다’가 맞다.

28) *통털어/ 통틀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틀다’이다. 부사로 쓰인다.

29) *바람/ 바람

표준어 11항. ‘바람’은 ‘바라다’에 명사 형성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것이다.
‘*바래’, ‘*바래서’, ‘*바랬다’는 모두 비표준어이다.
예) 돈을 바라서 한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30) *덮히다/ 덮이다

‘덮다, 짚다, 높다’의 사동형은 ‘덮이다, 짚이다, 높다’이다. ‘-히-’는 주로 ‘ㄱ, ㄴㅂ, ㅂ’ 받침을 가진 말과 결합한다.

예) 먹히다, 굶히다, 넓히다, 입히다

31) *말아라/ 마라

맞춤법 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라’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예)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32) *있슴/있음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예전에 쓰던 ‘*있읍니다, *먹읍니다’ 때문에 ‘*있슴, *없슴’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33) *아물든/아무튼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40항). ‘결단코, 무심코, 요컨대, 하여튼’ 등이 그것이다.

34) *알맞는/알맞은

‘-는’은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다.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알맞은’이 맞다.

35) *웬지/웬지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가 맞다. 하지만 “웬 떡이나” 경우는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 ‘웬’을 쓴다. (웬일, 웬만큼, 웬걸)
예) 가을에는 웬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웬 일이세요?

36) *갈애/ 갈아

‘갈-’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좋은 것 갈아.’가 맞다.

37) *옛부터/ 예부터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이고 ‘예’는 ‘옛적, 오래전’의 뜻으로 구분해 쓴다.
예) 예부터 전해오는 미풍양속입니다.
옛날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38) 기타(자주 틀리는 말)

*성냥개피/성냥개비	*꼼쓸머리/곱쓸머리	*재털이/재떨이
*봉숭화/봉숭아	*봉숭아땀/복사땀	*머릿발/머리말
*무우/무	*시원찮다/시원찮다	*쌍둥이/쌍둥이
*삭월세/사글세	*오푸기/오퓍이	*설겅이/설거지
*잔디밭/잔디밭	*저희나라/우리나라	*치과/치과
*휴게실/휴게실	*햇님/해님	*푸르른 날/푸른 날
*오랜동안/오랫동안	*오손도손/오손도손	*아물든/아무튼
*무릎쓰고/무릅쓰고	*꺼꾸로/거꾸로	*넙적하다/넙적하다
*귀멀다/귀먹다	*강충강충/강충강충	*낙지볶음/낙지볶음
*우뢰/우레	*뒹판/뒤판	*치루었다/치렀다
*계시판/게시판	*날자/날짜	*올바르다/올바르다
*남비/냄비	*뺨국이/뺨꾸기	*육계장/육개장

4. 외래어 표기법 10

4.1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11

- 1) 본래 언어의 발음에 가깝게 적는다.
- 2) 국어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2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예) 콘서트/*컨서트, 콘텐츠/*컨텐츠
- 3)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적는다.
예)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ㅃ, ㅆ, ㅈ)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파리/*빠리, 카페/*까페
- 5) ‘자, 저, 조, 주, 차, 처, 추’ 를 쓰지 않는다.
- 6)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예) 라디오, 오페라, 모델, 바나나, 계놈

4.3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세칙 12

- 1) 파열음
예) 로봇/*로보트, 플루트/*플룻, 테이프/*테이프, 케이크/*케익
- 2) 마찰음과 파찰음
예) 패밀리/*팩미리, 페리호/*페리오, 대시/*대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벤치/*벤치, 스위치/*스위취, 주스/*쥬스, 텔레비전/*텔레비전, 차트/*차트
- 3) 모음
예) 디지털/*디지털/*디지털, 터미널/*터미날, 컬러/*칼라,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보트/*보우트, 볼링/*보울링, 윈도/*윈도우

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

1) Equational expressions:

(Noun1 은/는) Noun2이에요/예요. (N1=N2)
(Noun1 은/는) Noun2(이/가) 아니예요. (N1≠N2)
은/는 is the topic particle. It indicates that the attached noun is the topic described by the subsequent statement. 은 is used when Noun ends in a consonant, and 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vowel.
예)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마이클은 미국사람이에요.
N이에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consonant, **N예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vowel. 예)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린다는 제 조카**예요**.

2) Comparing items: 은/는 vs. 도

The particles 은/는 and 도 are used to compare two or more items.

은/는: The items are different or contrastive.

도: The items are parallel.

예) 저는 일학년**이에요**, 수잔은 3학년**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수잔**도** 한국 사람**이에요**.

3) Verbs vs Adjectives 동사와 형용사

Verbs typically denote action and processes (including mental processes), whereas **adjectives** typically denote states (size, weight, quality, quantity, shape, appearance, perception, and emotion).

예) Verbs: 먹다, 앓다, 알다, 인사하다, 가다, 오다

Adjective: 좋다, 맛있다, 싸다, 재미있다, 많다, 크다

4) The structure of predicates: The polite ending -어요/아요

The structure of predicates consists of a stem and an ending. The polite ending -어요/아요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 in conversation. It has a number of variations. When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either 아 or 오, -아요 is used. All other stems take -어요. There are exceptions to the above rules. 이다(이에요), 아니다(아니예요), 하다(해요). Vowel contractions may change the ending. (가다-가요, 지내다-지내요, 자다-자요, 싸다-싸요)

예) 학교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한국이 좋아**아요**.

The honorific ending -(으)세요

-(으)세요 is an honorific form of -어요/아요. It is a combination of the honorific marker - (으)시 and -어요. 예) 할아버지는 영어 공부를 하**세요**.

5) Subject particle 이/가

The subject particle 이/가 indicates that the word attached to it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at is, what the predicate is about. Note that when a noun or a pronoun function as a topic or is used for comparison, the particle 은/는 or 도 is used instead of 이/가.

예) 커피**가** 맛있**어요**. 학교 도서관**이** 이층에 있**어요**.

6) [Place]에 있어요.

In referring to the location of an object, the locative particle

10. 외래어 표기법(2004), 외래어 표기 용례집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화체육부 제 2004-11호

11.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법

12. 홍종민, 정희원(2005),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한인교육연구 23호

에 and the existential verb 있다/있어요, not -이다/이에요, must be used.

예) 서울 대학은 서울에 있어요.

7) The conjunction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is a conjunction that means 'and'. 그런데 is a conjunction that means 'but'. 그래서 is a conjunction that means 'so'.

예) 우리 학교는 커요. 그리고 학생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커요. 그런데 운동장이 안 넓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예요. 그래서 생일파티를 해요.

8) Use of 있다/없다 to express possession

-있다 refer to either the existence or the possession of an object or person. In honorific forms, the two different words are used as follows.

예) 저는 사전이 **있어요**. 저는 사전이 **없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계세요**.

Expressing possessive relations: N1 (possessor) N2 (possessed)
- Possession involves two part,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d.

예) 우리 아버지, 제 책, 영수 가방

- Possessive particle의, comparable to the English preposition 'of', may be used sometimes, but usually not in conversation, except for limited contexts, mostly when both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d refer to abstract concepts.

예) 한국의 수도, 오늘의 뉴스, 한국의 대통령, 내, 제

9) Joining nouns: N1 하고 N2 'N1 and N2'

The particle 하고, like 'and' in English, is attached to a noun expression and joins it to another noun expression. This particle is usually used in colloquial speech and informal writing. 예) 저는 남동생**하고** 누나가 있어요.

10) The object particle 을/를

The particle 을/를 marks the object of the verb. The basic sentence patterns 'N 이/가 N 을/를 - 어요/아요'. The subjects designate the actors, the ones who do the action, and the objects designate the things that the actors do something to.

예) 철수가 아침**을** 먹어요. 동생이 친구**를** 만나요.

Omission of particles

In conversation, however, nominal frequently are marked with any particle at all.

예) Q: 뭐 하세요? A:아침 먹어요.

11) The locative particles 에 and 에서

The locative particle **에** is used to indicate where an object exists ([place]에 있어요). What is indicated is a static loca-

tion and the simple existence of an object. The particle **에** is also used to indicate destination or goal. A different particle, **에서**, is used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ctivity. It refers to a dynamic location, because the action or activity takes place in that location.

예) 누나는 도서관**에** 가요.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요.

12) Numbers, Noun Counter

Numbers: Korean uses two of numbers, native Korean numbers and Sino-Korean numbers. Some native Korean numbers have two form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followed by a counter or used in isolation.

예) 하나-한 (명), 둘-두 (명), 셋-세 (명), 넷-네 (명), 스물-스무 (명)

Noun Counter: When you count, you must use different counters. Nouns are classified into many groups depending on shape or kind.

-With Sino Korean number: 학년, 월/일, 층, 과, 년, 분, 달라(불), 원, 마일

예) 일 학년, 삼 월, 오 층, 육 과, 칠 년, 삼 분, 십 달러, 천 원, 이십 마일

-With native Korean number: 명/사람, 개, 과목, 과, 달, 마리, 시, 시간, 잔, 장

예) 한 명, 다섯 개, 여섯 과목, 한 과, 일곱 달, 여덟 마리, 아홉 시, 열 두 시간

13) The negative adverb 안, 못

안 : Negation of a predicate in general is made by putting the negative adverb 안 immediately before the predicate.

예) 가요- 안 가요, 먹어요- 안 먹어요. 와요-안 와요.

Negation of noun + 하다 verbs 'do [noun] ' is usually made by putting 안 between the noun and the verb 하다, that is, [noun] 안 하다.

예) 공부해요-공부 안 해요, 연습해요-연습 안 해요, 일해요- 일 안 해요

Some verbs and adjectives have a special negative counter-part.

예) 있다-없다, 이다-아니다, 알다-모르다

못 : 'unable, cannot' is used when external circumstances prevent a person from doing something. In contrast, 안 is used for general negation.

예) 어제 바빠서 숙제를 못 했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못 가요.

14) Past events: -았어요/었어요

-았/었/ㅆ indicates that event described has already taken place. -았 after a stem ending in 아, 오, and -었 elsewhere,

-ㅈ is used when vowel contractions occur as in 갔어요 (from 가었어요). The final ending after -었/았/ㅈ is always -어요, not -아요.

예) 지난 주말에 아주 **바빴어요**. 친구와 만나서 **좋았어요**. 점심에 갈비를 먹었어요.

15) Irregular predicates in -ㅁ

Some predicates whose stem ends in ㅁ are subject to variation in the stem form. When the following suffix begins with a vowel, ㅁ becomes either 우 or 오.

예) 가깝다- 가까워요, 춥다-추워요, 덥다-더워요, 어렵다-어려워요

For monosyllabic irregular verbs in -ㅁ, such as 돕다 'to help', 곱다 'to be pretty', ㅁ changed to 오.

예) 돕다-도와요, 곱다-고와요

Irregular predicates in -ㄹ

When an adjective or verb stem ending in ㄹ is followed by ㅁ, ㅅ, the final ㄹ is omitted. In this case, the vowel -(으) is not inserted. (알+ -으세요-> 아세요)

예)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오세요. 학교에서 집까지 **멀니다**. 맛있는 쿠키를 **만드세요**.

6.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과 규범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용 오류들을 점검하며 실제 언어 현장에서 많은 규정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보았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의 주요 사항들을 영어 설명과 함께 상세히 다루어 보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특별히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설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은 가능하면 쉽게 만들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 집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교재 개발, 교사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에 관한 올바른 문법 지식의 이해를 가지고 학습자 앞에 서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학습자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수혜자(受惠者)와 전달자(傳達者)의 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중(言衆)에 의해 그 체계와 성격이 조금씩 변하므로 언어 규범도 그에 맞게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변

화되는 언어 규범을 빠르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계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바른 문법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쪼록 혼란스런 언어 학습 현장 속에서 밝은 등불의 역할을 담당하는 훌륭한 한국어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재욱(2006),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북피아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논문 발표 자료집,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민현식(2004), 한국어의 특징과 맞춤법, 한국어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세계화재단
 박경래(1997), 실용문에 나타난 유형별오류실태분석1, 언어학 제1호, 중원언어학회
 박경래(2000), 실용문에 나타난 유형별오류실태분석3, 언어학 제4호, 중원언어학회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지영, 한국어문법 교수법,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상명대한국어언어문화센터
 이희승, 이병희(1995),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정원돈(2005), 문법과 언어교육, 세명대학교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상명대한국어언어문화센터
 정희원(2002), 국어 어문 규정, AATK 7th Annual Conference, 국립국어원
 최용기(2007),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립국어원
 홍종민, 정희원(2005),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한인교육연구 23호

-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고시 제88-2호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외래어 표기법>(2004), 외래어 표기 용례집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화체육부 제 2004-11호

KLEAR Textbooks,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University of Hawaii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커뮤니케이션북스

4 강의록 III



이 승 민

Principal, New Covenant Church Academy

소통과 공감:

1세대와 차세대 교사 및 교육

학교는 즐거워야 하고, 서로 통해야 한다. 즐겁지 않고, 통하지 않는 조직은 생명력을 잃은 조직이다. 학생과 교사, 부모와 교사, 교원 상하좌우 막힘 없이 시원하게 통하는 학교에서 화합도, 발전도,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국의 언어와 열, 문화와 뿌리교육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40년 장기 근속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오늘의 한국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학술대회에서 봉사의 마음으로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여러 세대의 선생님들을 뵈는 때 마다 가슴이 따뜻해 진다.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아이들은 무척 많이 변했으니, 교사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는 이제 무의미 하며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과 목표가 필요하다. 이에,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습득하시고자 교사연수회도 참석하시며 사이버대학의 강의로도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과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지식을 조작, 창조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의회와 그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각각의 한국학교에서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차세대 교사라 할 수 있다.

세대간 격차는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나타났다. 과거 세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동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결과이며 미래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이해와 지도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1세대와 차세대의 세대차이는 유지되어야 하며 사고방식과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4년과 대학 교육 받았기에 흔히들 말하는 1.5세이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좋아했고 배웠으며 몸에 익혔으나 대학 졸업 후 한국과 관련된 직장 일을 하면서는 잘 이해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많이 극복할 수 있었으며, 문화와 역사관에 대한 의식을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미국에서 차세대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 교육은 한국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버지니아에서 동해병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동해병기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동해가 아닌 일본 해로 정규 학교에서 배워왔기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한국학교는, 기본적인 언어 교육을 떠나 역사관을 심어주고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세상을 만나는 창문은 교사이다. 교사가 어떤 창문을 가졌는가에 따라 학생의 세상을 달라진다.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한국학교 교사에게 달렸다. 이렇듯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자, 한국을 소개하는 안내자 그리고 문화 교류에 앞장서는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는 교사 자신이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1세대 교사들은 차세대 교사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 보다는 한국어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차세대 교사들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해 더 노력하여야 함을 종종 이야기 한다.

한국은 운명적으로 나의 모국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접하는 많은 아이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모국으로 여기며 자라고 있다. 차세대 교사들 역시 미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한국을 부모님의 모국으로 인지시키고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며 소통하며 공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이해하며 이들의 방식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한국학교와의 인연은 좋아하는 전도사님과 선배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한 고등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대학생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처음에는 아이들 교통편(ride)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학교 시작 2시간 전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수업시간은 선생님들 잔 심부름해주고 학교 종료 2시간 이후에나 운전이 마무리 되었으나 즐겁게 봉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학생이 되면서는 학교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영어가 부족한 1.5세대를 위해서는 토플과 SAT (SAT II Korean을 포함 영어와 수학)를 준비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국어 외의 수업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바뀌어 나감을 보게 되었다. 1.5세, 2세 그리고 3세 아이들이 하나될 수 있는 장을 한국학교를 통해서 마련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 교장의 일에 전념하고 지역 협의회에서 임원으로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학교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어색했고 잘 맞지 않은 웃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와 소속 협의회에 변화에 작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문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과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교사들 사이에서 세대 차와 교육관의 차이가 현격하여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요즘 젊은 교사들이 교장이나 선배교사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육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95.6%가 교단에서 심각한 세대 차를 느낀다고 답했다 한다. 같은 문화권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데, 서로 다른 교육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한국 학교는 어떠할까? 구세대는 신세대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

방적인 데 대해, 신세대는 구세대의 권위적이며 경직,정형화된 사고에 대해 세대 차를 느낀다고 한다. 한 문화 가운데에서 교사의 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느끼는 세대 차를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라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세대변화, 교육 학습의 개념변화, 세기별 직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구성 방향의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 차이등 교사간 서로 다른 행동의 경향성을 가지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교사간의 차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행동유형의 차이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관계형성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뿌리 교육이라는 큰 명제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는 새로운 교수법의 터득을 통한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간의 소통과 공감을 먼저 형성하고 하나됨을 실천하여 한국을 알아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국학교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언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커다란 개별 차를 보인다. 또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역시 장래 직업 선택의 목적, 부모의 강권, 한국인임을 자각한 본인의 필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교사는 우선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학생이 변하고 있으니, 당연히 학생을 대면하는 교사가 변해야 하며 새로운 교육관과 교수법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협의회에서 차세대 교사 육성과 1세대 교사와 차세대 교사간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교사들의 연수회에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정할 때 가능 하다.

“위에서 정했으니 따르라”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위에 분들은 물러나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 1세대 교사들은 변화의 흐름을 수궁하고 변화의 강도를 서로 합의하여 조율하여 향후 재미 한국 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을 주어야 할 것이며 차세대 교사들은 1세대 교사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올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강의록 IV



Korean Language Teaching in the US

황정숙 교감

Jeong-sook Hwang (Palisades Park High School Korean teacher)

Korean Language Teaching in the US: Present and Future, Cases of New York and New Jersey

▶ 조정숙 (Jeongsook Cho)

현 Palisades Park High School
한국어 교사
사랑한국학교 교감,
전 럿거스대 한국어 강사

jcho@palpschools.org
jeongcho7@gmail.com

▶ *정지혜 (Jeehyae Chung)

현 미시간 미들랜드한글학교 교사,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컬럼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
이중언어교육 박사

jeehyae@gmail.com

1

미국내 외국어 교육 확대의 필요성

- ▶ **NSLI**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국가안보언어계획): 2006년 부시 정부에 의해 발족; **한국어**, 중국어 및 아랍어를 포함한 '필수 언어'(critical need languages)를 지정하여 K-16 레벨의 외국어 교육 확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 계획
 - 관련 장학금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 STARTALK (공립학교 교사 및 학생 대상);
 - FLAP (Foreign Language Assistance Program; 언어교육 관련 교육 기관 대상)

2

미국내 외국어 교육 확대의 필요성

- ▶ "Asia in the Schools" 보고서 (Asia Society, 2001): 미국내 공립학교에서의 아시아계 언어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는 보고서; **한국어**는 국가보안과 대외 무역과 관련한 필요성 제기
-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07*: 미국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서; 1980년 이래 **한국어**반 등록 학생이 타 언어에 비해 월등한 성장인 30% 인상된 것으로 보고

3

미국내 한국어 교육의 역사 (K-12)

- ▶ 1980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설립
- ▶ 1995 SAT II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 채택 (한국어 진흥재단 (구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 설립: SAT II에 한국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단체에서 출발)
- ▶ 2007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추진위원회 설립 (뉴욕/뉴저지/커네티컷 3개주 공립학교의 한국어 교육 확대 추진)

4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현황 (미국내 6개 교육원 중심)

▶ 2015년 자료

- ▶ LA: 유초등 14 + 중등 35
- ▶ 샌프란시스코: 유초등 1 + 중등 2
- ▶ 시카고: 유초등 1 + 중등 6
- ▶ 휴스턴: 유초등 1 + 중등 6
- ▶ 워싱턴: 유초등 1 + 중등 2
- ▶ 뉴욕: 유초등 5 + 중등 21

- 총 34개주 23 유초등학교 (3,624명), 72 중등학교 (8,047명)
 ▶ 총 11,671 명 학생 수강 (출처: 한국어진흥재단, 2014. 12.31)

▶ 2013년 자료

- ▶ 학교수: 124 (ES-39, MS/HS-85)
 - ▶ 한국어반 수: 493 (ES-187, MS/HS-306)
 - ▶ 학생수: 9,876(한국계 : 3345, 비한국계 : 6531)
- (출처: 한국어진흥재단, 2013)

5

문제제기

- ▶ 1997년에 SATII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가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나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립 중고등학교는 70여개에 불과
- ▶ SATII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
- ▶ 반면 대학내에서의 한국어반 등록 학생수는 증가하는 추세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07).

6

문제 제기

- ▶ 한국어반 설립이 된 학교의 수는 여러 개이나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의 수는 적음
- ▶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간의 연계 필요
- ▶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사 양성

7

Rutgers University/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추진회 장학생

- ▶ 앞서 언급한 문제를 인식한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는 2008년에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8년부터 Rutgers University에서 30학점의 한국어/한국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 시작; 2010년 봄에 30학점 모두 취득, 이수함
- ▶ 이지선 (전 NY Stuyvesant HS), 조미경 (전 NY MS 142), 황정숙 (현 Palisades Park High School), 김지선 (전 NY PS 219), 원지영 (현 Ridgefield High School)

8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 과정; 요건사항 (뉴욕)

- ▶ 사범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일 경우 사범대학을 통해서 취득 가능
- ▶ 사범대학 졸업생이 아닐 경우: 학부 졸업, liberal arts and sciences 30 학점, 교육학 관련 과목 21 학점 및 한국어/한국학 관련 과목 30학점 등
- ▶ 다른 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일 경우: 한국어/한국학 관련 과목 30학점, 관련 workshop 이수 등

9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 과정 (뉴저지)

- ▶ 사범대학 졸업, 한국어/한국학 관련 과목 30학점 (이 중 12학점은 대학원 레벨 이상), 미국 시민권 등의 자격 조건 있음
- ▶ 위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한 지원자일 경우 district training 수료 후 최소 1년의 경력을 갖춘 후 지원 가능함

10

앞으로 필요한 사안

- ▶ 고급/대학원 수준 한국어 과목의 확충
- ▶ 한국어 교사 자격 지원자들에게 맞춰진 과목의 확충 (i.e., Academic classroom English for foreign teachers 또는 Academic classroom Korean for Korean teachers)
- ▶ 현재 미국 대학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어/한국학 관련 과목들을 한국대학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 대학과의 연계
- ▶ 한국 정부 안에 외국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서와의 연계

11

중국어 보급의 예

- ▶ 'Hanban'
"국제 중국어 위원회 총국" ("The Office of The Chinese Language Council International")의 별칭으로, 중국 정부내 12개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세계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Hanban은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나 교육부와 재경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내 주요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Hanban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실제로 국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공자학원과 Asia Society 및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를 시행하는 College Board를 통해 중국어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06년 4월에 Hanban은 College Board와 공식 협정을 맺어 첫 3년동안의 임시 교사 보급, 신규 중국어 프로그램 설립, 교사 양성, 교재 개발 등을 함께 하기로 하여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의 중국어 보급에 첫 박차를 가함.

12

중국어 보급의 예

- ▶ Hanban의 주요 업무
- ▶ 1. 중국어를 국제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 수립
- ▶ 2.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 널리 퍼져 있는 중국어 프로그램 지원
- ▶ 3. 공자학원 (Confucius Institute, 현재 세계 각국에 약 200곳의 공자학원이 개설되어 있음) 설립을 위한 공자학원 총본부의 업무 지원
- ▶ 4.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수 및 평가를 위한 일반 표준 수립, 중국어 교수를 위한 교재 개발
- ▶ 5.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사 인증을 위한 표준 수립; 교사 연수; 중국어 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사 자격 시험의 시행
- ▶ 6.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위한 표준규격 제정; 관련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플랫폼 개발
- ▶ 7. 다양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시험 개발

13

현황

- 1995년 한국어 SAT II과목으로 채택; 현재 미국 전역에 한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64개 학교 한국어반 개설
- 2007년 10월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창립: NY, NJ, CT의 3개주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required subject)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설립
- 2008년 가을이후:
 - 1)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에서 선발한 5명의 장학생이 한국어 교사 자격을 받기 위해 Rutgers University에서 Korean content course 수강함. (NY 교사 3명; NJ 교사 2명)
 - 2) 2015년 9월 현재 2명의 새 교사가 수강을 마침 (이명진, 박찬미- NJ)
 - 3) Rutgers University MA (Korean language education) 과정 졸업:
 - 김영훈 교사(예비 한국어 교사), 강리아 교사(데모크라시프렘)
- 미국의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학교수: 124 (ES-39, MS/HS-85)
미국의 정규학교 한국어반 수: 493 (Es-187, MS/HS-306)
정규학교 한국어반 학생수: 9876(한국계 : 3345, 비한국계 : 6531)
(한국어진흥재단 자료, 2013)

[Provisional Certificate]

Approved Teacher Education Program completion, 30 Korean content core (including 12 advanced level), testing requirements, citizenship, physiology and hygiene course completion

[Certificate of Eligibility (CE)]

Approved Teacher Education Program completion, 30 Korean content core (including 12 advanced level), testing requirements, citizenship, physiology and hygiene course completion (district training completion으로 standard certificate 취득 가능)

15

[Standard Certificate]

Provisional certificate + district training program completion + at least 1 yr 교사 경력

[Limited Certificate for Foreign Teachers] district에서 필요가 있을 경우; 3yr

16

[Initial Certificate]

Pathway 1 Approved teacher preparation program:

program completion, exams, finger print clearance

Pathway 2 Individual Evaluation: bachelors degree, liberal arts and sciences 30 학점, pedagogical 21 and Korean content core 30, student teaching, exams, workshops, fingerprint clearance

Pathway 3 Individual Evaluation for Additional Teacher Certification: Korean content core, workshops, fingerprint clearance

17

Professional Certificate:

Pathway 1 Approved Teacher Preparation Program:

Initial certificate + 3 yrs 교사 경력+1 yr mentored experience + 미국 시민권

Pathway 2 Individual Evaluation: : Initial certificate + 석사 학위 + 대학원 수준 Korean content core 12학점 + 3yrs 교사경력 + 1 yr mentored experience + 미국 시민권

Pathway 3 Individual Evaluation for Additional Teacher Certification: Initial certificate + 석사 학위 + 대학원 수준 Korean content core 12학점 + 3yrs 교사경력 + 1 yr mentored experience + 미국 시민권

18

■ New Jersey Teacher Certification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현황 (미국내 6개 교육원 중심)

▶ **2015년 자료**

- ▶ LA: 유치원 14 + 중등 35
- ▶ 샌프란시스코: 유치원 1 + 중등 2
- ▶ 시카고: 유치원 1 + 중등 6
- ▶ 호스틴: 유치원 1 + 중등 6
- ▶ 워싱턴: 유치원 1 + 중등 2
- ▶ 뉴욕: 유치원 5 + 중등 21

- 총 34개주 23 유치등학교 (3,624명), 72 중등학교 (8,047명)
▶ 총 11,671 명 학생 수강 (출처: 한국어진흥재단, 2014. 12.31)

▶ **2013년 자료**

- ▶ 학교수: 124 (ES-39, MS/HS-85)
- ▶ 한국어반 수: 493 (ES-187, MS/HS-306)
- ▶ 학생수: 9,876(한국계 : 3345, 비한국계 : 6531)
(출처: 한국어진흥재단, 2013)

1

미국내 외국어 교육 확대의 필요성

▶ “Asia in the Schools” 보고서 (Asia Society, 2001): 미국내 공립학교에서의 아시아계 언어 교육의 확대를 주장하는 보고서; **한국어**는 국가보안과 대외 무역과 관련한 필요성 제기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07*: 미국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서; 1980년 이래 **한국어**반 등록 학생이 타 언어에 비해 월등한 성장인 30% 인상된 것으로 보고

2

미국내 한국어 교육의 역사 (K-12)

- ▶ 1980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설립
- ▶ 1995 SAT II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 채택
(한국어 진흥재단 (구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 설립: SAT II에 한국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단체에서 출발)
- ▶ 2007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추진위원회 설립
(뉴욕/뉴저지/커네티컷 3개주 공립학교의 한국어 교육 확대 추진)

3

Certificate of Eligibility (Alternate Route)

- Issued to individuals who have NOT completed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the below requirements
 - Requirements: 30 Korean content course credits (at least 12 credits being advanced) (15 credits for 5-8)
 - Oral Proficiency Interview
 - Physiology and Hygiene requirement (can be fulfilled by taking a test)
 - For 5-8 the individual also needs to receive certification elementary school subject matter certification
 - Basic skills test requirement (Since 9/1/2015: tests including SAT, ACT, GRE verbal/quantitative)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related methodologies
 - 24 hour requirement on basic pedagogy

4

Provisional Certificate

- ▶ For newly hired teachers with a CE or CEAS and a full-time teaching position
- ▶ Valid for two years
- ▶ By finishing the Provisional Teacher Program that requires receiving mentoring, supervision/evaluation, and at least 200 hours of formal instruction, the teacher will be able to receive STANDARD CERTIFICATION

5

Standard

- ▶ Issued to individuals who have completed the provisional teacher program, holds an instructional certificate or holds a valid out-of-state instructional certificate with one year of full-time teaching experience under the certificate

6

- 30 Korean content course credits (at least 12 credits for 5-8)
- ▶ **Requirements:**
 - Professional teacher preparation (coherent sequence of courses including student teaching)
 - Letter of teaching experience
 - Oral Proficiency Interview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related methodologies – at least three credits
 - Physiology and Hygiene requirement (can be fulfilled by taking a test)
 - For 5-8 the individual also needs to received certification elementary school subject matter certification and credits from a course in 'adolescent psychology'

7

If you are not a US citizen

- ▶ A five-year certificate may be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met all requirements
- ▶ Renewal depends on the applicant's ability to show evidence of progress toward obtaining citizenship

8

Two cases – A

- ▶ **Teacher A**
 - MA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rom Korea
 - Received CE by completing other requirements
 - Hired by New Jersey school district
 - Is currently undergoing the Provisional Teacher Program training

9

Two cases – B

- ▶ **Teacher B**
 - Received MA in TESOL, K-12 ESL
 - Received CEAS in ESL
 - Received CE (for teaching Korean) by fulfilling additional requirements for Korean-teaching endorsement

10

Miscellaneous Information

- How long does it take?
 - Traditional route: approximately two weeks from the day that a college recommendation is received
 - Individual applications that are not processed via a college of education: varies (summer is the busiest)
- How much does it cost?
 - CE: \$170
 - CEAS: \$170
 - STANDARD: \$95

11

Basic Skills Test Requirement (After September 1, 2015)

- After September 1, 2015, achieve a minimum score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on a Commissioner-approved test of basic reading, writing, and mathematics skills, or score at least 1660 combined critical reading, writing, and mathematics score on the SAT, at least a 23 on the ACT, or at least a 4.0 on the analytical writing section and a combined score of 310 on the quantitative and verbal sections of the GRE. Official scores must be presented directly from Educational Testing Service to the NJ Department of Education. Only official scores are accepted.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code (R7666) and your Social Security number must appear on your test score report in order to be accepted. Please submit a copy of your test score report if you have taken the appropriate exam.

12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교사 교안

1 교사 이은혜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 학교

수업 형태	수업 양식 / 학생의 학습활동에 시점을 둔 형태
수업 이름	우리 가족을 소개 합니다.
프로그램 소요 시간	60분
준비물	가족에 관한 Index 카드와 학습할 내용의 프린트물(각 구성원에 대한 것), 가위, 풀, 연필, 크레용, 지우개..
수업 진행 방법	1. “우리는 집에서 누구랑 같이 있어요?, 또는 살아요?, 매일 아침에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을 하고 답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배워본다. 2. 학생들과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오빠/형, 언니/누나, 아기등의 단어를 단어 카드를 이용해 소개한다. 3. 손가락 가족 동요를 배우고 율동과 함께 불러본다. 4. 아이들에게 각자 단어 그림 프린트 종이, 글자 프린트 종이, 카드, 가위, 풀을 나누어 준다. 5. 아이들이 그림과 글자를 선을 따라서 오리고 카드에 잘 붙일수 있도록 도와준다. 6. 카드 뒷면에 따라서 쓸수 있는 단어 글자를 미리 붙여준다. 아이들이 뒷면에 큰 글자 단어를 따라 쓴다. 7. 다 한 학생들이 그림 안을 색칠 할수 있도록 크레용을 준다.
수업 효과	학생들이 가족의 구성원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한글 글자를 인지하고 기억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사진 (optional)	

2

교사 전 보 경

워싱턴 통합 한국학교

수업 형태	3명씩 그룹활동
수업 이름	게임을 통해 숫자를 익혀보자
프로그램 소요 시간	50분
준비물	숫자카드, 포인트스틱
수업 진행 방법	1. 숫자 일(1)부터 십이(12)까지 읽어본다. 2. 숫자 하나(1)부터 열둘(12)까지 읽어본다. 3. 활동지를 풀어본다. 4. 그룹으로 모여 써어져 있는 한글로 된 숫자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 5. 게임을 통해 숫자를 익힌다. 세명씩 그룹이 되어 한명이 숫자를 보이면 두명은 그 숫자에 맞는 한글을 포인트 한다. 먼저 그 숫자와 일치되는 한글을 짚으면 카드를 가져간다. 6. 조금 난의도를 높여, 일(1)부터 십이(12)까지의 한글카드를 보여 주면 그 한글카드와 매치되는 하나(1)부터 열둘(12)까지의 한글카드를 포인트스틱으로 먼저 짚으면 카드를 가져간다.
수업 효과	게임을 통해 재미와 더불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습득하는 방법은 빠른 효과를 가져왔다.
수업 사진 (optional)	 

3

교사 임 경 은

빌립보한국학교

수업 형태	게임과 노래로 학습하기
수업 이름	된소리 익히기
프로그램 소요 시간(분)	30 분
준비물	동물 소리가 들어간 카드, 동물 이름이 적힌 카드 (앞뒤), 컴퓨터, 음원
수업 진행 방법 1	1. 먼저 동물 농장 노래를 같이 듣고 배운다. 2. 동물들의 이름과 동물의 울음소리 낱말 카드로 알아맞추게 한다. 3. 각자 좋아하는 동물들과 울음소리를 물어본다. 4. 동물 낱말 카드를 각각 나눠주고 지정해 준다. 5. 007 게임을 시작할때 규칙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준다. 6. 지목당한 학생옆의 학생들이 그 동물 소리를 내야 한다.
수업 효과	재미있게 즐기면서 된소리를 자연스레 익히고 동물들의 낱말 공부도 할수 있다.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 가
배나무 밑엔 염소가
외양간에는 ()
우위야 우우우우
우위야 우우우우
깊은 산속엔 ()
높은 하늘엔 ()
부뚜막 위엔 ()
마루 밑에는 ()
우위야 우우우우
우위야 우우우우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
배나무 밑에 염소들이
외양간에는 ()
깊은 산속엔 ()
높은 하늘엔 ()
부뚜막 위엔 ()
마루밑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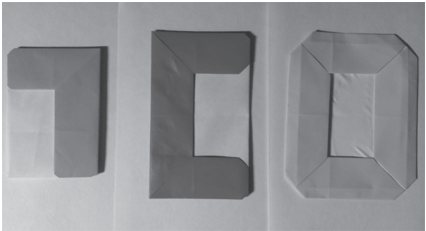
단어 공부

- 동물 농장 - animal farm
- 닭장 - chicken coop
- 암탉 - hen
- 문간 - the gate section, gateway
- 거위 - goose
- 배나무 - pear tree
- 염소 - goat
- 외양간 - barn, stable
- 송아지 - calf
- 산속 - in the mountains
- 뻐꾸기 - cuckoo
- 종달새 - sky lark
- 부뚜막 - wood-burning stove
- 마루 - wooden floor

4

교사 장 정 원

종이마을

수업 형태	Activity
수업 이름	자음/모음 색종이로 접기
프로그램 소요 시간	45 분 ~ 1시간
준비물	색종이, 풀, index card
수업 진행 방법	1. 색종이를 이용해 자음/모음을 접는다. 2. 학생 각자 접은 자음 또는 모음을 index card 에 풀로 부쳐서 flash card 로 만든다. 3.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플래쉬카드를 이용해 복습을 놀이형식으로 유도한다. 예1) 선생님이 자음/모음을 말하면, 학생들이 해당 자음/모음의 플래쉬카드를 찾아 소리내어 읽으며 들어 흔든다. 예2) 선생님이 플래쉬카드를 보여주며 학생들이 소리내어 발음하게 한다. 예3) 선생님이 학생을 1명씩 호명하며 예1 또는 예2)를 활용, 정답을 맞춘 학생에겐 goody bag 에서 treat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수업 진도에 따라 플래쉬카드로 음절 또는 단어 조합을 유도한다.
수업 효과	지루할수 있는 worksheet drill 에서 벗어나 놀이형태로 아이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자음과 모음의 날자를 다양한 감각으로 익혀 반복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수업 사진 (optional)	

5

교사 안 민 아

영생 한국학교

수업 형태	한국 문화 수업
수업 이름	추석
프로그램 소요 시간(분)	2 시간
준비물	차례상 음식, 추석 관련 파워포인트, 차례관련 영상 (드라마), 튀밥, 물엿, 설탕, 식용유
수업 진행 방법	1. 추석이 뭔지 아는지 물어보고 추석에 뭘하는지 물어본다 2. 제사의 의미와 제사때 무얼하는지 파워 포인트로 알려준다 3.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알아보고 칠판에 써본다. 4. 차례상에 음식이 올라가는 순서를 보고 활동지에 순서대로 음식이름을 적는다. 왜 그런 순서대로 놓는지를 생각해보고 추측해 본다. 그리고 왜 그렇게 놓았는지 알려준다. 5. 아이들이 음식 사진을 가지고 직접 차례상을 차려 본다. 6. 자기 마음대로 차례상을 차려보고 왜 그렇게 차렸는지 얘기한다. 7. 아이들과 함께 쌀 강정을 만들어 본다.
수업 효과	
수업 사진 (optional)	

6

교사 이 경 애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학교

수업 형태	의사 소통식 교수법
수업 이름	몸과 관련된 신체어 익히기
프로그램 소요 시간	45 분
준비물	용판, 얼굴 부위, 거울, 그림카드, 낱말 카드(영어, 한글) White Board & Marker, 장갑, 반지, 목걸이, 뽀로로 노래(손 씻기송)동영상,몸 에 관한 낱말 자음퀴즈(PPT), 게임판
수업 진행 방법	1.도입 (10 분) 1)지난 시간에 배운 얼굴과 관련된 낱말 복습하기 2)용판에 얼굴에 관련된 부위를 붙여가면서 복습한다. 3)게임판을 사용하면서 낱말을 읽는다. 2.오늘의 학습 제시(10 분) 1)교사가 그림카드를 보여 주면 학생들이 그림의 낱말을 말한다. 학생들이 낱말을 말할때 칠판에 붙인다. (몸, 어깨, 다리, 손, 팔, 배, 등, 무릎, 가슴) 2)교사가 영어로 단어를 말하면 학생들이 한글로 말하고 영어와 한글을 연결한다. 3)뽀로로 노래(손씻기송)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중점 학습 내용을 같이 보며 읽는다. “깨끗이 씻었니?” “네, 엄마” 교재를 보여주며 주요 학습 낱말을읽어준다. 질문: 어디를 씻고 있나요? 답: 머리, 어깨, 배, 가슴 등등 3. 과제 수행 - 글쓰기 연습(15 분) White Board 를 사용하여 글쓰기 연습을 한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을’같이 율동을 하며 노래한다. 장갑과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은 어디다 껴야하는 지를

수업 진행 방법	질문한다(목걸이, 새 신발, 등등) - 그림보고 말하기 활동 활용연습 - ‘말해 보세요’ 교재를 보여주면서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본다. ‘손 깨끗이 씻었니?’ 문형연습 그림에서 가려진 부분의 이름 말하기 다음 시간에 쓰기 연습으로 이어진다고 말함 4. 정리 (5분) 배운 단어들을 다같이 읽는다. 손 유희 하면서 다음 시간을 제시한다. (음: 송아지) 어깨, 가슴, 배도, 등도, 두 손도, 두 발도, 배를, 등도, 무릎도 우리 모두 다같이 온 몸을 흔들어 5. 몸에 대한 자음퀴즈를 한다. (5분) 6. 과제물 제시- 과제물을 설명한다. 1)글쓰기 연습 (신체어를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 예) 손으로 피아노를 쳐요. 입으로 노래를 해요. 다리로 걸어서 학교에 가요.) 2)그림과 관계있는 말에 동그라미 하기 3)몸의 어느 부분에 있나? 단어와 잇기 연습 4)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각 부위를 써오기
수업 효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손 유희를 하면서 신체어를 익힌다. 쓰기 연습을 종이가 아닌 White Board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종이판을 사용하며 즐겁게 게임을 하며 복습할 수 있다. 몸에 대한 단어를 PPT게임으로 익히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수업 사진	 

7

교사 박은형

벤엘 한국학교

수업 형태	그룹또는 개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형태
수업 이름	추석은 어떤 날인가?
프로그램 소요 시간	30분
준비물	자석이 부착된 추석에 대한 사진과 사진에 대한 단어 (프로젝터가 가능한 교실은 프로젝터 활용) 빙고차트, 상품(사탕)
수업 진행 방법	1. 추석에 대하여 영어로 설명한다. 추석의 유래, 음식, 놀이 한국어로 요점 정리 2. 사진을 보여주며 (또는 프로젝터) 사진과 짝이되는 단어를 함께 배운다. 3. 한 팀은 사진을 한팀은 단어를 나누어 준다. 칠판에 맞는 사진과 단어를 번갈아 가며 붙인다. 팀을 바꿔서 다시 복습 4. 단어들만 칠판에 나열해서 읽어본다. 5. 개인이나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빙고차트에 칠판에 있는 단어들을 쓴다. 6. 지우고 싶은 단어를 말하고 단어에 대한 그림을 찾던지 뜻을 설명한다. 맞으면 그 단어를 지우고 틀리면 맞춘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말한다. 반복한다. 7. 빙고!
수업 효과	시각(사진)으로 단어를 배워서 빨리 외우게 됨 각자 다른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 익숙한 게임 형식으로 모두 참여
수업 사진 (optional)	

8

교사 손혜수

빌립보 한글학교

수업 형태	음절 만들기, 소그룹 활동 및 듣기, 쓰기 형태
수업 이름	음절공부 & 음절합성
프로그램 소요 시간	1시간 30분
준비물	모음, 자음 카드 준비와 개인용 화이트 보드와 마커 & 이레이서 음절 만들기 위한 시각 자료(한글이 야호), 음절표 학습지, 기초1 학습 교재 (26-27) 인덱스 카드, 색펜, 크레용
수업 진행 방법	1. 칠판에 음절표를 만들고 함께 작성해간다. 음절차트를 배우고 읽으면서 기억시킨다 2. 아이들에게 음절표를 주고 각자 작성하게한다. 3. 자음 모음 으로 우리가 쓰고 읽을수 있는 작은 낱말들을 만들어본다. 선생님이 부르는 단어를 모음 자음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본다. 4. 낱말찾기 한후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낱말찾기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후 이긴팀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 (연필, 지우개..) 5. 그림 카드를 만들어서 오늘 배운 단어들을 다시 기억할수 있도록한다 6. 음절 노래들 들려 주면서 오늘 배운것들을 다시 복습한다.
수업 효과	음절표를 만든후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수 있는 작은 단어들을 발견하면서 너무들 신기해 했고 특히 팀대항 으로 게임을 할땐 너무도 열심히 하며 서로 도와주고 즐거워했다.
수업 사진 (optional)	

9

교사 오 승 연

벤엘 한국학교

수업 형태	영상과 학습지를 통한 전체 수업
수업 이름	벤엘한국학교 SAT 한국어반 - 독립운동가 ‘안중근’
프로그램 소요 시간	1시간 30분
준비물	1. 독립 운동가 ‘안중근 의사’ 영상 2. ‘100대 민족문화 상징’ 에서 발췌한 ‘안중근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까?’ 3. ‘안중근 의사’ KWL 차트 4. ‘안중근 의사’ 학습지
수업 진행 방법	1. KWL 차트를 사용 독립 운동가 ‘안중근’ 에 관해 학생에게 질문한다. (5분) 2. 각 학생은 각자의 KWL 차트에 ‘K’ 과 ‘W’ 부분을 작성한다. (7분) 3. 교사는 칠판에 있는 KWL차트에 각 학생이 나누는 내용을 모두 적는다. (10분) 4. 영상을 보기 전 학습지를 나눠주고 내용 이해에 필요한 독립운동,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관련 낱말과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가르친다. (10분) 5. 영상을 함께 보며 중요한 장면과 내용에 일시정지를 하고 설명한다. (20분) 6. 영상을 본 후 학생들에게 질문 할 시간을 주고 질문에 답 한다. (5~10분) 7. ‘안중근 의사’ 학습지를 함께 읽으며 영상의 내용과 비교한다. (10분) 8. KWL 차트를 보며 ‘W’ 에 적힌 질문에 답을 알아본다. (5~10분) 9. KWL 차트의 ‘L’ 분을 함께 작성하며 필요하면 부연 설명을 한다. (10분)
수업 효과	한국학교에 보통 6-7년 이상 다닌 학생들이는데 독립 운동가의 활동과 ‘안중근 의사’ 에 관해 몰랐던 내용을 배우며 우리의 근대사에 흥미를 갖기 시작함.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한일간의 갈등이 개화기를 시작으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를 지나 최근 ‘독도’ 영유권 관련 일본이 쏟아내는 망언을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음.
수업 사진 (optional)	

10

교사 정 유 진

버밍햄 한인장로교회 한국학교

수업 형태	소규모 역사 수업
수업 이름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소요 시간	40분
준비물	다양한 형태의 우리나라 지도(실제 지도, 토끼 모양으로 표현, 호랑이 모양으로 표현), PPT 자료와 프린트
수업 진행 방법	- 반장에게 출석을 부르고 체크 하도록 한다. 우리반의 규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다. 지난주에 내 준 숙제확인: 한국의 상징물에 대해 알아 온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손을 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의 상징물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를 준다. 숙제를 해 온 친구에게 출석표에 마크를 추가 해 준다. - 지도 모양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상징이 호랑이 인지, 그리고 왜 토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 생각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 - 국가 기록원에서 정한 다섯 가지 상징물을 PPT자료를 보며 소개 해 준다. 아이들이 필기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프린트 자료도 함께 나눠준다. - 태극기를 설명하며 태극기 안의 문양의 색들이 뜻하는 의미를 기억하는지 손들어 이야기 해 본다. - 국새, 문장 등 낯선 단어지만,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일에 쓰임을 설명해 준다. - 나만의 상징물을 만들어 본다. - 숙제: 세종대왕 상에 대해 조사해오기
수업 효과	지난 학기에 그려본 태극기 수업과 관련 지어서 모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알게 한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수업 사진 (optional)	

11

교사 최 지 환

뉴욕 한국학교

수업 형태	Music
수업 이름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Class (한국 전통악기반)
프로그램 소요 시간	60 minutes
준비물	Janggo, Buok, Gong, Big gong (Korean) Instrumental sticks
수업 진행 방법	1. When the kids first come in, they are assigned to take their instruments out of the storage area. 2. Then the students go to their designated spots. Janggos in one spot, buoks on the other. 3. We start by doing our weekly drills. Our drills consist of basic rhythms and beats. 4. Then we review what we learned the past week. 5. Then, we practice our original Samulnori piece. 6. Finally we learn new beats and rhythms for another complete samulnori piece.
수업 효과	The kids enjoy the class very much and have fun while playing the instruments. Before classes start, our younger students rush into the room enjoy time together to set up and catch up with one another. The older students on the other hand, help setting rest of the instruments and lead the younger students to learn more effectively.
수업 사진 (optional)	

12

교사 김 호 희

열린문 한국 학교

일일 교육안

		교사 이름 :		학급: 진달래 3		날짜: 10/17	
교재:		단원명 : 맞춤 한국어 (3 과 어디에 가요?)		문화: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운다.		1 학기 6 주	
학습목표		1. 이중모음 복습 / 이중모음 들어간 단어 복습 2. 맞춤 한국어 (3 과 어디에 가요 / 무엇을 타고 가요?) 주어+은 or 는 / 장소+에 3. 한글기초 (4 과 흰 색 운동화)					
교시	학습 내용	교수 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교과서 및 Activity Sheet 참고 Site	지도상 유의사항 학생들 반응 및 이끌어 갈 방법		
1 교시	복습	1. 자모음, 이중모음, 단어 복습	9:30 9:45	단어카드, 자모음 카드			
	이중모음	2. 이중모음 복습	9 :45 10:00		순서대로 쓰기		
	이중모음 단어	3. 게임을 통한 이중모음 들어간 단어 복습	10:00 15	단어카드			
	질문에 답하기	4. 맞춤 한국어 (3 과 어디에 가요?/ 무엇을 타고 가요?)	10:15 50	교재/ 단어카드, 프린트, 차트	문법: 주어+은/는 장소+에		
2 교시		음악시간	10:50 11:10				
	간식	11:15-11:25	10 분				
3 교시	문장 읽기	한글 기초 (4 과: 흰 색 운동화)	11:25 11:40	교재	지난주 숙제 (3 과 읽기)		
	창의적인 생각과 읽기	동화책 읽기 (이솝 이야기)	11:40 -50	동화책			
마 무 리		코인 나누어 주기 숙제와 통신문 전달/ 정리정돈 및 인사	11:50 - 12:00		코인 숫자 세기 칭찬과 격려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차시 예고		쌍자음 읽히기, ~을 읽어요					

	34 주 교육안	열린문 한국 학교 Open Door Korean School www.odks.org ☎ 703-318-8970
---	-----------------	--

교육 지도안(2015.9 ~2016.1)

반이름	진달래(기초 2)	교사: 김호희
기 간	2015 / 9 / 12 ~ 2016 / 1 / 24	교재: 맞춤 한국어 2 외

일자	학습 내용	회화/문화/역사	비고
1 주 (9/12)	1. 실력 테스트 2. 기본 모음과 자음 복습 3. 기본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받침 없는 단어를 만들어 보고 읽어본다.	인사, 자기소개	1:15 교사회의
2 주 (9/19)	1. 기본 모음과 자음 복습 2. 이중모음 학습 3. 맞춤 한국어 (2 과 우리 엄마예요)	가족 소개	
3 주 (9/26)	1. 이중모음 학습 (ㅞ, ㅟ, ㅠ, ㅡ, ㅢ) 2. 이중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학습 3. 한국고유 명절 “추석”에 대해 배운다.	송편 만들기	추석
4 주 (10/3)	1. 이중모음 학습 (ㅞ, ㅟ, ㅠ, ㅡ, ㅢ) 2. 이중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학습 3. 맞춤 한국어 (1 과 워싱턴에서 살아요)	한국과 미국의 수도와 도시 이름과 특성을 배운다. (청와대와 백악관 비교)	교내 글짓기 및 백일장대회
5 주 (10/10)	1. 이중모음 2 학습 (ㅜ, ㅠ, ㅡ, ㅝ, ㅞ) 2. 이중모음 2 가 들어간 단어를 학습 3. 맞춤 한국어 (3 과 어디에 가요?)	가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6 주 (10/17)	1. 이중모음 2 학습 (ㅜ, ㅠ, ㅡ, ㅝ, ㅞ) 2. 이중모음 2 가 들어간 단어 학습 3. “탈 것”에 대해 배운다.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기차, 버스, 지하철...)	어디에 가요? 무엇을 타고 가요? 질문을 통해 단어를 습득하고 탈것을 비교	
7 주 (10/24)	1. 쌍자음 익히기 (ㄲ, ㄸ, ㅃ, ㅆ, ㅆ) 2. 쌍자음이 들어간 단어 학습 3. 맞춤 한국어 (4 과 책을 읽어요)	“세종대왕”에 대해 배워요.	
8 주 (10/31)	1. 쌍자음 익히기 (ㄲ, ㄸ, ㅃ, ㅆ, ㅆ) 2. 쌍자음이 들어간 단어 학습 3. 숫자 공부	나이, 가족수, 전화번호, 학생숫자 세보기 활동을 통해 숫자를 셀 수 있다.	교사회의 (8:30)

일자	학습 내용	회화/문화/역사	비고
9 주 (11/7)	1. 이중모음, 쌍자음 복습 2. 단어 복습 3. 단위 명사 (명, 마리, 권, 송이, 개...)	질문에 적합한 단위명사로 대답할 수 있다.	글짓기 및 백일장 대회 참가 (WAKS)
10 주 (11/14)	1. 맞춤 한국어 (5 과 우유가 좋아요) 2. 명사 + 이 or 가 좋아요/ 싫어요	한국음식과 미국음식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해 본다	
11 주 (11/21)	1. 맞춤 한국어 (6 과 불고기를 좋아해요) 2. 명사 + 를 or 을 좋아해요 / 싫어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 본다/ 한국과 미국의 식사 문화 비교/ 땡스기빙때 먹는 음식	공개수업 사친회 교양강좌
12 주 (12/5)	1. 맞춤 한국어 (7 과 누가 노래해요?) 2. 명사 + 이 or 가 -해요	각 나라와 지역의 계절에 대해 배우기/ 좋아하는 계절과 싫어하는 계절을 말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교사회의 (1:15)
13 주 (12/12)	1. 맞춤 한국어 (8 과 언제 수영해요?) 2. 시간에 대해 배우기 3. 일일 계획표를 만들기	각 나라의 성탄절 문화에 대해 배우기	스승의 밤
14 주 (12/19)	제 8 회 교가 및 애국가 부르기 대회		
15 주 (1/10)	1. 맞춤 한국어 (8 과 언제 수영해요?) 2. 월, 일, 요일, 시간을 말할 수 있다.	생일 초대장을 만들어서 읽어 본다.	교사회의
16 주 (1/17)	복습 및 학기말 시험을 위한 예비 시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17 주 (1/24)	학기말 시험		

2 학기 학습 교육 지도안(2016.1 ~2016.6)

반이름	진달래(기초 2)	교사: 김호희
기 간	2016 / 1 / 31 ~ 2016 / 6 / 11	교재: 맞춤 한국어 2 외

일자	학습 내용	회화/문화/역사	비고
1 주 (1/31)	1. 1 학기 과정 복습 2. 맞춤 한국어 (9 과 장난감 기차가 있어요?) 3. 명사 + 가 or 이 있어요. (긍정, 부정문 만들기)	한국의 고유 명절 설날에 대해 배우기 (12 간지)	2 학기 개강
2 주 (2/6)	설날 행사		설날행사
3 주 (2/13)	1. 맞춤 한국어 (10 과 제 책이에요) 2. 명사 + 이에요 or 예요 아니에요 or 아니예요	O,X 게임을 통해 이에요 or 예요/ 아니에요 or 아니예요로 대답할 수 있다.	교사회의
4 주 (2/20)	1. 맞춤 한국어 (11 과 치마가 아니예요) 2. 명사 + 이에요 or 예요 아니에요 or 아니예요	각자 장래 희망을 말해 보세요.	교내 나의 꿈 말하기 대회
5 주 (2/27)	1. 상황에 따른 인사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안녕히 계세요...) 2.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고 상황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다. (역할극)	교사 연수회 (12:00-)
6 주 (3/5)	교내 동화구연 및 시낭송 대회		
7 주 (3/12)	1. 맞춤 한국어 (12 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요) 2. 명사 + 을 or 를 + 동사 예) 그네를 타요 / 책을 읽어요 요리를 해요 / 텔레비전을 봐요	입어요, 벗어요, 신어요, 씌요, 껴요, 신어요...	교사회의
8 주 (3/19)	1. 맞춤 한국어 (12 과) 2. 주격조사 이 or 가 목적격조사 를 or 을 예) 영수가 그네를 타요. 동생이 책을 읽어요.	부활절 의미에 대해 배우고 각 나라의 부활절 문화에 대해 배운다.	SAT / 모의고사
9 주 (4/2)	1. 맞춤 한국어 (12 과) 2.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배우기 (수영장, 놀이터, 공원, 학교...) 3. 주격조사+ 이 or 가 장소+ 에서 - 를 or 을 + 동사 예) 동생이 공원 에서 그네를 타요.	한국의 전통 의식주 에 대해 배우기/ 한국의 전통 혼례 배우기	

일자	학습 내용	회화/문화/역사	비고
10 주 (4/9)	1. 한글학교 한국어 2 (2 과 아빠하고 엄마는 자전거를 타요)	한국과 미국의 교통문화 비교	동화구연, 시낭송, 나의꿈 말하기 대회 참가
11 주 (4/23)	1. 맞춤 한국어 (15 과 아빠, 엄마, 사랑해요) 2.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배우기 (사랑해요, 행복해요, 피곤해요, 기쁘요, 슬퍼요...) 3. 신체부위 <i>가or 이</i>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팔목이 아파요...)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감정이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발표한다. 병원에 갔을 때 아픈 부위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고사
12 주 (4/30)	1. 신체 부분의 명칭에 대해 배우고 역할에 대해 배운다. 2. 동물들의 신체 부분의 이름에 대해 배운다.(머리, 배, 꼬리, 더듬이, 등...) 3. 한글학교 한국어 2 (9 과 코끼리는 커요)	미각에 대해 배우고 음식과 연결해서 경험해 보기 (짜다, 달다, 쓰다, 맵다, 싱겁다...)	
13 주 (5/7)	1. 사물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 (위, 아래, 앞, 뒤, 옆, 중간...) 2. 반대말 배우기 (크다/작다, 높다/낮다, 길다/짧다, 무겁다/가볍다, 느리다/빠르다, 싱겁다/짜다, 기쁘다/슬프다)	한국의 김치, 간장, 된장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배운다.	교사회의
14 주 (5/14)	1. 색깔에 대해서 배운다. (과일, 학생들이 입고 온 옷...) 2. 배운 단어와 조사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든다.(을, 를/ 이,가)	Mother's day 카드 만들기 / 한국의 어버이날 소개와 카네이션	연합학예회 날말 경연대회 (WAKS)
15 주 (5/21)	1. 직업에 대해 배우기 (선생님, 가수, 의사, 요리사...) 2.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25 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한 문장으로 써보기	
16 주 (6/4)	복습 및 평가		교사회의
17 주 (6/11)	학예회		

11

교사 김 어 진

열린문 한국 학교

학습목표		1. 기본 모음 10개를 말 하고 쓸 수 있다. 2. 자음 [ㄹ ㅁ ㅂ ㅅ]에 대해 이름과 음가를 알 수 있고, 각 자음과 연관된 몇 개의 단어를 말 할 수 있다. 3. 회화 - [이것 (저것) 이 뭐예요? / -이예요(예요), 예 (아니오) -이예요.] 이 문형으로 묻고 답 할 수 있다.			
교시	학습 내용	교수 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교과서 및 Activity Sheet 참고 Site	지도상 유의사항 학생들 반응 및 이끌어 갈 방법
1교시	애국가 출석	애국가 부르기, 출석 확인	10분	출석부	
	숙제 검사 복습	숙제 검사를 한다. 지난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17분	도장이나 스티커 준비	지난 주에 배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역사 시간	20분		
2교시	자음 [ㄹ ㅁ ㅂ ㅅ]	자음 [ㄹ ㅁ ㅂ ㅅ]에 대해 배운다. - 각 자음의 이름과 음가에 대해 알려 준다. - 크고 정확하게 각 음을 따라서 소리 내어 말 해 본다. - 각각의 음가가 들어 있는 단어를 알아 본다.(예: 라디오, 레몬, 모자...)	15분	자석 칠판 자음 [ㄹ ㅁ ㅂ ㅅ]을 준비	
	자음 + 모음 = ?	자음 [ㄹ ㅁ ㅂ ㅅ]과 모음(10개)을 합해서 글자를 만들고 읽는 연습을 해 본다. - 예) ㄹ + ㅏ = 라 / ㅁ + ㅓ = 무 - 단어: 라디오, 리본, 레몬, 모자, 말, 병, 밥, 발, 손, 시계 등 - 바로 쓰기 연습	15분	자음과 모음 카드 준비 단어 카드 or 단어 시청각 자료 Ppt. 준비	자석 칠판을 이용해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글자를 만들고 스스로 음을 만들고 소리를 내 보도록 연습. 낱말 카드를 통해 각 음을 읽고 음을 낼 수 있도록 반복 연습.
3교시		간식 시간	15분		
	회화	수업 시간에 사용 할 수 있는 기본 회화를 배운다. - 이게(저게)이 뭐예요? / -이예요(예요) - 예) 이게 뭐예요? / 연필이예요. - 저게 뭐예요? / 시계에요. - 새 단어: 책상, 의자, 칠판, 시계, 가방, 지우개, 연필, 책, 공책 -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예문과 답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다음,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온 팀이 먼저 말 쓰하게 한다.	25분	Ppt. (단어, 문형) 연습용 문제 만들기 주사위	질문과 답을 실제로 알려 준다. 교실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ppt.를 통해 공부 한다. 〈짝 활동〉 짝을 지어서 문장을 만들고 답을 할 수 있도록 3분의 시간을 준 다음 뽑힌 팀이 발표를 하도록 한다. 〈목표〉 이 후 교사는 배운 문형으로 질문을 하고 학생들도 정확한 문형으로 답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
마무리	오늘 학습 내용 복습 숙제 제시	-오늘 배운 자음 [ㄹ ㅁ ㅂ ㅅ]의 음가 확인 -문형: "이게 뭐예요? / -이예요"에 대해 복습 한다. -숙제를 알려 준다.	5분	자음과 모음 카드 단어 카드 숙제 프린트 한 것	숙제 폴더를 나누어 주다.
차시 예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제시	다음 주에는 기본 자음 중 [ㅇ ㅈ ㅊ ㅋ]에 대해 배우는 것을 알려 준다.	2분		

6 차세대 교사 보고서

1 교사 김 선 호

벤엘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 남
- 2) 연령대 (10s, 20s, 30s...) : 50
- 3) 미국에 온 연령 : 31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6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7--8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사명감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관계가 아주 중요함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깨우쳐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벤엘한국학교 주임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무난함. 새로운 technology 도입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전적인 학생중심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가 있다면?

나의 작은 희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2 교장 김 인 숙

신시내티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여자
- 2) 연령대 (10s, 20s, 30s...) : 50대
- 3) 미국에 온 연령: 20대 초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21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생의 학년: 고등학생(주중 정규 학교), 초등학생 (매주 목요일), 입양반(매주 금요일)
- 6) 학생들의 세대: 100% 비한국계 미국 학생들
- 7)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로서, 미국에서 태어 난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 1)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배우는 스타일을 이해하고 항상 학생들 입장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학생들 위주의 교실운영방법인 몬테소리 교육방법으로 재미있게 운영함.
- 2)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있는 주제를 수업에 활용하여 Activity 와 project를 한다.
- 3) 수업외에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한국어의 관심과 동기유발을 유도한다.
- 4) 칭찬과 격려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 5) 한국홍보대사로서 한국어와 한국을 소개한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현 NAKS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아주 만족하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자의 입장으로 한국어를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기쁨과 자부심이 있으며,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재외동포 한글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학교의 시설을 3 학교 모두 다 훌륭한 편으로 모두 인터

넷, 컴퓨터, 프로젝터등을 수업시간에 교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세대에 걸맞게 학생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 스마트폰(smart phone)등을 직접 한국어 수업에 활용하고 싶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가. 매일 레슨을 PPT로 준비하여 그날의 수업의 목적, 주제, 중요한 단어 리스트, 단어와 그림 설명, project, work-sheet, workbook, 숙제를 알려준다.

나. 한글을 모음부터 소개하고 자음을 가르친다.

다.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구를 접목하여 사용함.

라.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화닉스, 교구들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침.

마. 교실에서 사용하는 expression을 외워서 사용한다. 예) 여기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따라하세요, 잘 들으세요, 10번 쓰세요. 읽으세요. 등등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세대와의 세대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 서로의 장점으로 보완과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두 언어와 문화를 적당히 알고 있어 별문제가 없이 잘 융화하고 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한국문화와 언어등을 잘 모르는 차세대만을 위한 뿌리교육의 기회를 많이주기 바란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한국어를 공부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3 교사 박은형

I. 영역 A

- 1) 성별: 여
- 2) 연령대 (10s, 20s, 30s...): 40S
- 3) 미국에 온 연령: 16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2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중고등부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봉사의 의미와 내 아이가 다니는 한국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 받은 사춘기의 학생들은 권의적이며 확립적인 교육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부모의 의해 오게 된 한국학교에 취미가 없어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듯 하다. 그런 학생들이 이중언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서로 많은 대화를 가지며 적절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의 말을 경청해 주면서 정체성을 심어주며 함께 배워나가는 수평의 관계도 필요한것 같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일반교사이며 만족한다. 예전(10-20년전)과는 다른 학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학교 시설은 대체로 잘 되어있다고 생각함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변화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 가르칠 수 있는 문화와 역사가 한정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참여하여 교사가 배워서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는 한국 문화나

역사 (전통 놀이, 악기, 무용, 미술 등등)를 체험하는 시간, 수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교재 제공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학생들과 한국을 이어 줄 수 있는 다리(BRIDGE)역할의 교사: 언제가는 학생들이 그 다리를 스스로 잘 건널 수 있게 조력자가 되어주자

4

교사 손혜수

빌립보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여
- 2) 연령대 (10s, 20s, 30s...)-42
- 3) 미국에 온 연령-17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몽고메리 카운티 주최 여름 한국 캠프(Wayside ES) 3년, 빌립보 한글학교 2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1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미국공립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여름캠프를 진행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중언어가 주는 장점들을 가르쳐주고 한국인으로의 자부심을 심어 주기위해.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 학생들과의 관계-엄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선생님. 특히 영어로 아이들과 소통할수있다는점이 아이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갈수있는 관계
- 다른 교사와의 관계-서로 도와주고 같은 기초1 선생님 끼리 수업방법 게임도 서로 공유하고 도와주는 상호 관계가 매우 돈독함.
-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 카톡방을 첫수업부터 개방해 매주 수업상태와 아이들의 수준을 항상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매우 만족하고 있고 1.5세대에게도 편견 없이 이런 기회를 주신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저희 빌립보 한글학교 저희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교실이나 모든 환경조건은 만족하는 편이지만 아직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교재가 많이 부족하기에 보충되었으면 한다. 물론 WAKS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해 본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고 게임을 통해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것을 중요시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쉽게 한글을 가르칠수있는 데이터 정보가 부족하고 가장 근래의 맞춤법 표기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못한점.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것을 중요시 하는 미국 교육방법보다 한국식으로 복잡하고 들어야 하는 관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문제로 어려울때가 있다. 그럴때 교장선생님 아닌 동료선생님께 얘기해서 자문을 많이 듣고 해결해 나간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차세대 교육자 세미나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거 같다. 하지만 경력 우선이 아닌 차세대 교육자에게도 돌아갈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외국인이 아닌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의 자부심과 얼마든지 할수있고 이룰수있다는 꿈을 주고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힘이라는 것, 우리나라대한 사랑을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심어주는것이 나의 목표이자 사명이다.

5

교감 오 승 연

벤엘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오승연
- 2) 연령대 (10s, 20s, 30s...) 40s
- 3) 미국에 온 연령 14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13년 (14년차)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8~12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 교인의 추천으로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미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활동을 하는지 1.5세로 또한 현직 공립학교 교사로 잘 알기에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학교 수업 시간에 동떨어진 수업 형식보다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교수 방법과 학생들이 한국학교를 통해 한인 2세로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적절히 선택해 흥미를 유발하며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학생들이 제가 준비하는 수업을 흥미로워하고 궁금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학생 자신이 한인 2세로서 미 주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학생들과의 수업과 대화를 통해 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현재 벤엘한국학교 교감직을 맡고 있고 만족하고 있음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우리 학교는 교회 소속이고 교실과 학습활동 공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학교의 역할을 교회와 교인이 인식하고 후원해 주고 있고 교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음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현직 공립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수업하기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함.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학교 3학년때 이민을 와서 한국어 문법과 역사 지식이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에 비해 낮다고 생각함. 하지만 내 자신이 이런 문제를 알기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4번에 답 했음.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미국 공립학교가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도록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이중언어가 능통한 차세대 교사와 한국 교육부가 함께 기본 토대를 만드는데 한국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그리고 이것은 보다 많은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협의회와 한국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로 차세대 교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바람.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연수 전까지 하나 만들어 보겠음.

6

교사 이 경 애

필라델피아 임마누엘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 여자
- 2) 연령대 (10s, 20s, 30s...) - 50대
- 3) 미국에 온 연령 - 20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19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유치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첫 아이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먼 상태여서 첫 학기를 한국학교에서 기다렸다. 내 아이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생겼다. 교육학을 전공하여서 한국학교 교사를 지원했다.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 학생들과의 관계 -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나이가 있지만) 친구같은 관계
- 다른 교사와의 관계 - 수업 학습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 도와주는 관계
- 학부모와의 관계 - 대화를 많이 한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교감(학교), 감사(동중부 협의회)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학교시설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건물이 오래되고 돌로 되어서 와이파이가 한정적이어서 불편하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미국 정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국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점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차세대가 교사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것 같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한국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전문적인 교육을 수강했음.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차세대 교사에게 다양한 전문성있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면 합니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다중문화권 아이들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자.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7

교사 최 지 환

뉴욕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 남
- 2) 연령대 (10s, 20s, 30s...) : 20s
- 3) 미국에 온 연령: 7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만 3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4th - 12th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특기로 가지고 있던 사물놀이를 Korean-American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고등학교 11학년때부터 한국학교에서 국악반 교사를 하게 되었기에 그들에게 나는 ‘선생님’ 이라기보다는 ‘형’ 이고 ‘오빠’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학생들은 open mind로 나를 대했고 나도 그들의 마음을 빨리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고민했었던 문제였고,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몇 년 전에 어려워하는 문제였고, 그 아이들이 속상해하는 부분들이 내가 몇 년 전에 속상해하는 부분이었다. ‘친구’ 로 그러나 ‘멋있고 아름다운’ 국악을 보여주는 선배로 ‘보여주는 사람’ 으로 학생들과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나를 믿어줬고 나도 학생들을 믿는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학교수업부문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 현재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없다, 협의회에서는 차세대교사 선생님이나 2세 선생님들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나이를 불문하고 협의회에서도 차세대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학교시설은 매우 만족한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연이 있거나 외부에서 공연이 있을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공연을 하면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업시간에 본인

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있다. ‘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지 나이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paid job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2세 3세 Korean-American 차세대 교사들이 관심을 더 가질 것이다. Volunteering만 요구받다 보면 점점 관심을 잃게 된다. 뉴욕한국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paid job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글학교일은 무조건 ‘봉사’ 직이라고 젊은 Korean-American 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캠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배 선생님들과의 시간도 함께 하고 학생들도 가깝게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도왔다. 학생들과 어른 선생님들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차세대 교사들도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Motivation이 충분히 일어나고 도와주고 싶을 때 volunteer service를 하는 것이 진짜 봉사인 것 같다. 그런데, 어리니까 젊으니까 하면서 무조건 봉사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관심을 덜 갖게 된다. 실질적인 benefit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인턴이라든가 한국방문기회 제공이라든가 미국내의 한국정부기관에서의 인턴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번과 같은 free conference 나 workshop이 멋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차세대 교사들이 한국학교의 일이 ‘멋있고 근사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Open their mind.
Show them what I love.
And they walk with me.

8

교사 전 보 경

워싱턴통합 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 여
- 2) 연령대 (10s, 20s, 30s...) - 20s
- 3) 미국에 온 연령 - 24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 2년차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 2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

II. 영역 B: 다른 교사와의 관계 - 문제와 해결방안

사실 한국학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번이라 다른 교사들과 관계를 맺는다는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학기초에 제가 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로 의견도 묻고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만족합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저희 학교의 경우는 건물을 빌려쓰는 입장이니 학교 시설면에서 모든게 조심스럽습니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게임을 통해서 즐기면서 공부하기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공립학교에 한국어 수업늘리기 위한 노력, 2세들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발굴, 재정적지원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재미있는 한국어

9

교감 황 정 숙

사랑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 여
- 2) 연령대 (10s, 20s, 30s...) : 40대
- 3) 미국에 온 연령 : 26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23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성인반, 교감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한국어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 해외에 사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로서의 부담과 사명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빛진 심정이 이유였음. 해가 갈수록 더 겸손히 더 많이 배워야 함을 날마다 절감하는 중.

II. 영역 B: 다른 교사와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한국학교 교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음, 매주 금요일 이전에 전 교사들의 학습지도안을 미리 받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수정 요청을 함. 각 단계별 주임 교사들 중심으로 교사들이 협력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공유하도록 제시함.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이상으로 함께 일하는 교사들의 팀웍과 협력체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함.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사랑한국학교 교감. 동북부협의회 편집장 및 재무 역임함. 현재 제 17대 나스 편집장 수행 중.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기쁨과 만족이 있음.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시설은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하기에 학교로 사용함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마음놓고 부엌도 쓰고 운동장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음. 지역간 통합학교에 대한 구상 및 논의가 필요할 때라 생각함.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흥미롭고 적합한 한-미국어 수업활동을 실시해서 재미있고 역동적인 한국어 수업 현장을 만들려고 노력함.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을 시도, 영상매체나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탄탄한 한국어 문법 체계의 구축을 시도함.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와 한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국어 문법 구조에 대한 지식, 1세와 2세 사이에서의 세대차로 인한 고민, 다양한 문화충격 등을 예상함.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차세대 교사들만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워크숍의 기회 다수 제공, 학생들이 함께 한국 방문 연수 기회 제공, 멘토 한국어 교사의 시범수업 등 다양한 참여 기회 부여, 한국어 주 교재 및 부 교재의 제공, 한국-미국의 연계 문화학습 체험의 장 제공.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교사가 있을 뿐이다!”

10

교사 정 유 진

버밍햄한인장로교회 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여자
- 2) 연령대: 10s
- 3) 미국에 온 연령: 14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4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1~3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한국어와 영어를 다 할 중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II. 영역 B: 학부모와의 관계-문제와 해결방안

아이들의 수업 내용과 숙제를 부모들에게 알려준다. 그 래야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 해 줄 수 있고 무엇을 배우 는지 알려주면 부모의 관심을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현재 상황도 알려주면 부모님의 협조도 좋 아진다. 우리학교는 돈을 받지 않는 봉사 직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히 감사 해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챙겨주 시는 어머니들도 계셔서 힘들었던 마음이 살짝 없어지 기 도 한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어머니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학생 선생
님으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드리기도
하고 어른들로부터 배울 점도 많기 때문이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교회의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실로 쓰는 공간을 공유해
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 우리는 수업이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 회의를 하거나 하면 교실이 없어 이리
저리 빈 곳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수업을 못하게도 된
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과 같은 세대라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한다.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
을 진행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힘든 것 같다. 처음
에 초등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활동과 과제물을
내주면서 아이들도 잘 따라해서 힘들지만, 재미있었다. 그런
데 요즘은 약간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올해는 초급반 아이
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한국어로 하는 지시사항
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 중이다. 아직까지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중이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한국인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 더 많은 차세대교사가 한
국학교에 진출 할 것 같다. 우리학교에도 차세대 교사가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 봉사활동의 부분으로써 몇 년 하다가 자기
공부가 바빠지니까 다들 그만두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
친들 아이들이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배우는 아이들도 자
기가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들을 길
러 본 교사들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교사들이 우
선 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깨
닫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학습의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가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자.

11 교사 장 정 원

종이마을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 여
- 2) 연령대 : 40s
- 3) 미국에 온 연령: 16세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1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초등 3, 4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종이접기 특별활동을 통해서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

때때로 문화적 차이를 심하게 느낀다. 학생들은 미국에
서 태어나서 교육 받은 아이들이라 1.5세인 교사와의 세대
차이도 큰 듯하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 유?

예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특별한 의견 없음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종이접기를 활용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교사들 스스로가 한글 개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 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확실한 동기부여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면?

12 교사 임 경 은

빌립보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여
- 2) 연령대 (10s, 20s, 30s...) 40대 초반
- 3) 미국에 온 연령 16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총 5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성인반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예전에 가르친 경험을 살려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II. 영역 B: 학생들과의 관계 -문제와 해결방안

매우 친근하며 자연스럽게 솔직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아직 생김지 얼마 안되어서 위치가 불안하지만 학생들이 많으면 다른 레벨도 만들어서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는 만족합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교실이 늘 바뀌고 영상 시스템이 없어서 각 반마다 미디어 시설이 잘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각각 문화를 경험하여 잘 맞추어 줄수 있고 학생들의 원하는 목적을 최대한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빠르게 발전되가는 문화와 내용들을 잘 익혀서 현지에 맞춰 병행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문법 규칙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많이 외국인과 한국인을 가르칠때도 약간 다른 점들이 있어서 잘 보완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좀더 많은 실질적인 교육자료들을 활용할수 있게 전문 웹사이트 있으면 좋겠고 교회나 한국학교에 다양하고 좋은 교과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회가 많아서 활발한 교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도 보람이 있고 학생도 성과가 좋습니다.

13 교장 이 승 민

새언약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M
- 2) 연령대 (10s, 20s, 30s...) 30s
- 3) 미국에 온 연령 : 16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21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가르치지 않음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 자녀의 한국어와 뿌리교육을 위해

II. 영역 B: 학부모와의 관계 -문제와 해결방안

교장으로서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부모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눔. 요청시, 특별반 진급을 위한 추천서 작성하여 제공하여 대학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아이에게 뚜렷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와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안내함.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새로 바뀐 입학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부모 강좌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소통하며 의견을 나눔.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교장.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 학교 교육에 대한 큰 틀을 함께 만들지만, 각 반

을 책임지는 것은 선생님들이며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학교 시설은 작은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을 최대 6개까지만 나눌 수 있어 최대 수용 학생이 75명이다. 배움의 장이 좀 더 조용하였으면 좋겠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가끔 가르칠 때, 아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선 아이의 장 단 점을 파악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모두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장으로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교유 그리고 선생님과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아이의 관점에서 들어준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된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통과 공감. 아이들과의 문제는 개별 교수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적응과 동료 교사와의 마찰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에 있다. 이는 1세대 교사들은 원만히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내지만, 차세대 교사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의 시스템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차세대 교사들도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5) 차세대 교사로서 경험했던 문제와 해결 방안

정해진 수업과 사업단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추가된 학사 일정이나 행사가 생길 때,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다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감을 감지하게 되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음. 이는, 사전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에 처음에는 참고 참여하였지만, 나중에는 추가 행사나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나감.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차세대 교사들을 위한 한국 체험의 기회가 더 많아 졌으면 한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자!!

14 교사 안 민 아

영생한국학교

I. 영역 A

- 1) 성별 여
- 2) 연령대 (10s, 20s, 30s...) 20대
- 3) 미국에 온 연령 13살
- 4) 한국학교에서 가르친 햇 수 1년
- 5) 현재 가르치는 학년 2-4학년
- 6)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이유 그전에 한국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일을 도와드리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I. 영역 B: 다른 교사와의 관계 -문제와 해결방안

제 생각에는 학생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교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분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사들과 같은 학생에 대해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아님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조언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사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II. 영역 C:

1) 현재 학교나 협의회에서의 위치는? 맡은 일에 만족? 이유?

저는 지금 위치나 맡은 일에 만족을 하는편입니다. 아직 가르치는게 익숙하지않아서 저는 아직 배울게 많다고 느끼고 있기때문에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학교 시설은 어떤지 & 개선점:

학교 시설은 조금 더 과학적인 기술 예를 들면 projector나 큰 티비 같은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 재정이나 다른 이유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본인의 교수방법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직 경력이 많이 없어서 특별하게 계발한 것은 없지만 저는 우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있게 즐기게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4) 차세대 교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큰 문제나 이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차세대 교사가 한국학교에 더 많이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제생각에는 차세대 교사들 중에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나 협의회에서 차세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맞는 교과서와 문화를 알릴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차세대 교사로서 좌우명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차세대 교사로서 저는 아이들이 한국에대해 더 많이알고 자랑스러워 했으면 합니다.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즐겁게 공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Reading Based on Korean Stories

1 Recommended for all the ages

1. The Firekeeper's Son -by Linda Sue Park
2. Mung-Mung -by Linda Sue Park
3. Bee-bimbab -by Linda Sue Park
4. Tap Dancing on the Roof -by Linda Sue Park
5. Halmoni's Day -by Edna Coe Bercaw
6. Halmoni and the Picnic -by Sook Nyul Choi
7. Yunmi and Halmoni's Trip -by Sook Nyul Choi
8. Good Fortune in a Wrapping -by Joan Schoettler
9. Sometimes I'm Bombaloo -by Yumi Heo
10. Moondog -by Yumi Heo
11. A is for Asia -By Cynthia Chin-Lee
12. My name is Yoon -by Helen Recorvits
13. Yoon and the Christmas Mitten -by Helen Recorvits
14. Korean Children's Favorite Stories - By Kim So-Un
15. Dear Juno -by Soyung Pak
16. Sumi's First Day of School -by Joung Un Kim and Soyung Pak
17. A Place To Grow -by Soyung Pak
18. The Green Grogs: A Korean Folktale -by Yumi Heo
19. Behind the Mask -by Yangsook Choi
20. Peach Heaven -by Yangsook Choi
21. The Sun Girl and the Moon Boy: A Korean Folktale - by Yangsook Choi
22. When you were born in Korea: A Memory Book for Children Adopted from Korea
23. Count Your Way Through Korea (Count Your Way) -by James Haskins
24. Teach Me Korean -By Judy Mahoney

25. New Clothes for New Year's Day -by Hyun-joo Bae
26. Let's Learn About Korea : Customs of Korea -by Suzanne Crowder Han
27. Tigers, Frogs, and Rice Cakes: A Book of Korean Proverbs -by Daniel D. Holt
28. Let's visit Korea -by Heung Gi Han
29. The Royal Bee -by Frances Park, Ginger Park
30. Milet Mini Picture Dictionary : English-Korean -by Sedat Turhan
31. My Cat copies Me -bu Yoon D.Kwon
32. Waiting for Mama -by Tae-Joon Lee
33. Where on Earth is My Bagel? -bu Frances Park, Ginger Park
34. The Best Older Sister -by Sook Nyul Choi
35. My Freedom Trip -by Frances Park, Ginger Park
36. Peacebound Trains -by Haemi Balgassi
37. Good-Bye, 382 Shin Dang Dong -by Frances Park
38. Korean Americans (Spirit of America, Our Cultural Heritage)
-by Cynthia Fitterer Klingel
39. Babies Can't Eat Kimchee! -by Nancy Patz
40. Cooper's lesson -by Sun Yung Shin
41. The Trip Back Home -by Janet S. Wong
42. Father's Rubber Shoes -by Yumi Heo
43. Aekyung's Dream -by Min Paek
44. The Have A Good Day Cafe -by Frances Park
45. Korean Girl and Boy Paper Dolls -www.doverpublications.com

2

Recommended for the kids from 3rd Grade

1. Seesaw Girl -by Linda Sue Park
2. A Single Shard -by Linda Sue Park
3. Archer's Quest -by Linda Su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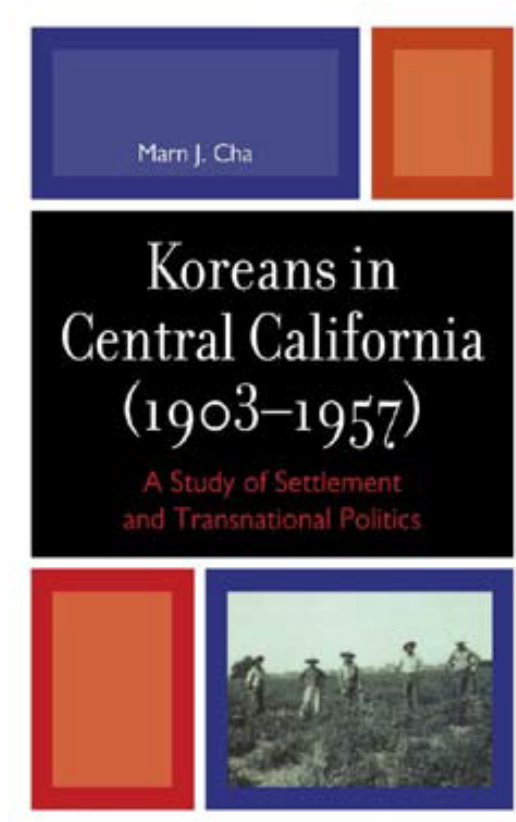
4. Education About Asia: www.aasianst.org

This website provides resources for K–12 teachers, includes excellent film reviews, and helps educators locate audio–visual resources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China,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

****Korea: Lessons for High School Courses**

Created by the Korea Society and recipient of Buchanan Award in 2000. It includes exceptional lessons on topics: national treasures, the miracle on the Han,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South Korea War, South Korean in War in Vietnam, and women. The Korean War lessons could be included in United States history classes. Available on the Korea Society.

참고 도서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The Korean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in 1882. This treaty opened Korea to American missionaries who proselytized Christianity to the Koreans. When Hawaii sugar planters recruited Koreans to come to Hawaii to work in the Hawaii sugar plantations, they picked most of the Korean Hawaii emigrants from the Korean Christian converts. Between 1902 and 1905, some 7,000 of them immigrated to Hawaii. Of those 7,000, about 2,000 transmigrated to the mainland. Most of these Hawaii Korean trans-migrants settled on the West Coast, primarily in California. This book tells the Korean immigrants' life stories in California's eight San Joaquin Valley farm communities: Fresno, Hanford, Visalia, Dinuba, Reedley, Delano, Willows, and Maxwell. It describes how they survived through discrimination and injustices in early twentieth-century America, and also details the Korean immigrants' efforts to regain their lost motherland from Japanese colonialism (1910–1945).

8 참가자 명단

1) 차세대 교사

번호	지 역	성 명	영 문	이메일	소속학교
1	워싱턴	김선호	Sun Ho Kim	Sam_k20@yahoo.com	벤엘한국학교
2	워싱턴	김어진	Howard Kim	howardkim28@gmail.com	열린문한국학교
3	워싱턴	오승연	Seung Yon Oh	beloved012@hotmail.com	벤엘한국학교
4	동중부	이경애	Kyong Yi	kyong63@gmail.com	필라델피아임마누엘한국학교
5	동북부	지석현	SeukHuyun Ji	mastersean.ji@gmail.com	맨해튼한국학교
6	동북부	최지환	Jihwan Choi	steps1995@gmail.com	뉴욕한국학교
7	동남부	정유진	Eugene Jeong	d.conan03@gmail.com	버밍햄한인장로교회한국학교
8	워싱턴	박은형	Eunhyung Park	eepark415@gmail.com	벤엘한국학교
9	콜로라도	유미순	Kristie Yoo	yketyoo@msn.com	새문한국학교
10	중서부	김인숙	Insook Kim	insook814@gmail.com	신시네티한국학교
11	워싱턴	김호희	Kimberly Hwang	hoheekim@gmail.com	열린문한국학교
12	워싱턴	전보경	Bo Kyung Jun	Sunnyjun0209@gmail.com	워싱턴통합한국학교
13	워싱턴	이승민	Seungmin Lee	lovedanlee@gmail.com	언약한국학교
14	워싱턴	장정원	Jungwon Chang	Jwch4@yahoo.com	종이마을한국학교
15	워싱턴	손혜수	Claire Son	Claireson220@gmail.com	빌립보한국학교
16	워싱턴	임경은	Christine Rheem	rheemc@hotmail.com	빌립보한국학교
17	워싱턴	안민아	Catherine Ahn	cahnfc@gmail.com	영생한국학교
18	워싱턴	김예술	Ye Sul Kim	Arts118@naver.com	맥클린한국학교
19	동북부	이은혜	Eun Hae Lee	gracefuleun@gmail.com	스태튼 아일랜드한국학교

2) 참가 내빈

번호	성명	직위	
1	강도호	총영사	
2	오영훈	주재관	
3	정종철	교육관	
4	문일용	FCPS 교육위원	
5	한연성	워싱턴지역 회장	
6	김명희	워싱턴지역 부회장	
7	김선화	워싱턴지역 부회장	
8	이승숙	선출이사	
9	황보철	전 이사장	
10	이내원	전 이사장	

3) 17대 집행부

직위	성명	영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총회장	최미영	Miyoung Kim	408-892-1623	president17@naks.org
부회장	김정자	Chung Ja Y Kim	609-224-3465	vp-ck@naks.org
부회장	김인숙	In Sook Kim	513-238-6679	vp-ik@naks.org
부회장	이승민	Seungmin Lee	703-628-4537	vp-sl@naks.org
사무총장	오정선미	Sunmi Jung Oh	267-255-4653	gs@naks.org
재무	유미순	Kristie Yoo	720-252-3295	treasurer@naks.org
편집장	황정숙	Jeong-sook Hwang	908-420-3953	jeongcho7@gmail.com
교육	한희영	Hee Young Han	408-482-9509	edu@naks.org
홍보	권예순	Yeasoon Kwon	469-231-2733	pr@naks.org
웹마스터	김원구	Wonkoo Kim, Ph. D.	408-828-9097	web@naks.org

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 임원

직위	성명	영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사장	장동구	DongKoo Chang	415-299-1379	dkoochang@gmail.com
부이사장	김대영	Daeyoung Kim	301-762-3873	daekim3@gmail.com
총무이사	김미경	Mikyung Park	919-244-9032	mipark@hotmail.com



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의 모습

